

크루즈선 부산항 102회 입항

부산항을 찾는 호화크루즈가 매년 크게 늘어나면서 부산이 동북아 크루즈 중심항으로 뜨고 있다. 올해 크루즈 관광객은 전년도에 비해 36%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말 북항재개발지역에 새국제터미널과 크루즈 부두가 완공되면 크루즈 중심항으로서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 질 것이다.



부산관광쇼핑센터
한국명품민예사



관광상품제작, 장승제작, 조형물 및 행사기념품, 문제작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탈의 제작기능을 이수한 업체, 나전칠기, 전통공예품, 문화재 복원 기념품, 인형, 도자기 등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적인 문화적 요소와 옛 선조들의 정성과 기원을 담아 보다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가면 제작자 右 曹 容 奘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2가 2-1 (용두산공원) | Tel (051)241-5188 | Fax (051)254-6002
한국명품민예사 Korean Traditional Folk Art Goods | 부산광역시관광협회지정



HOTEL PHOENIX



대연회장



스위트를



웨딩홀



웨스턴스타일식당



피닉스호텔 BUSAN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5가 8-1번지
Tel. 051)245-8061~9 Fax. 051)241-1523



발행·편집인 이태섭
편집위원 손혜식 이광규 김중규 이혜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이민지 객원기자)
발행일 2013년 5월 13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리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3-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사 동광동4기 18-8번지 2층
TEL. (051)463-3563 FAX. (051)466-8062
E-mail. bil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TEL. (051)469-3563
http://www.bomoon.kr



- 05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 세계인이 사랑하는 관광도시로
- 06 문광부 2013년 한국 관광신행 달성 위한 업무계획발표
- 07 부산시 2013년도 부산관광진흥 계획
- 08 동래부사집애사도 & 지역문화콘텐츠
- 10 이태섭 부산광역시관광협회장 감사패 수상
- 11 '높아진 한국 위상' 외국인 몰려온다
- 12 '부산시 벅스코 일대 MICE(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조성 추진
- 13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 14 부산시 문화정책, 민간 주도·현장문화 위주로 바꾼다
- 15 중화권 관광객수, 작년 일본 추월
- 16 여권 발급 절차 쉬워지고 빨라진다
- 17 김해공항 국제선 하늘길 대폭 늘어난다
- 18 부산 감천문화마을,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하는 문화마을로 우뚝
- 19 동구 초량 산복도로에 관광안내소 및 휴식공간 탄생
- 20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나들이객 북적
- 21 갈맷길 스토리맵 7월부터 서비스
- 22 말레이시아 MICE 로드쇼 2013 개최
- 23 부산 전통시장에 부산 야간관광 특화거리 개발
- 24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주제:지구의 정원 순천만)
- 25 부산관광안내
- 26 여행시장 변천사-1962년 1만명에서 2012년도 반세기만에 1300만명으로
- 28 의료관광특집-의료관광과 부산의 과제
- 30 의료관광특집-대동대학교 의료관광정보센터
- 32 부산, 외국인 의료 관광객 1년새 41% 급증
- 34 의료 관광객 숙박시설 '메디텔' 건립 쉬워진다
- 35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제23대 임원
- 36 국제관광도시 부산
- 39 중국 국기여유국 한국어서 활발한 홍보전
- 40 5월엔 여행을 떠나자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 세계인이 사랑하는 관광도시로...

2015년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 전망



부산이 세계인이 사랑하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963년 부산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6만2천600여명에 불과했다. 2003년 147만3천여명, 2009년 200만명 시대를 연 이후 지난해는 261만명이 찾았다. 오는 2015년이면 외국인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열 전망이다.

부산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난 것은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문화·관광상품을 끊임없이 개발, 즐길거리·먹을거리가 넘쳐나고 볼거리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키우는 MICE(회의·포상관광·대규모 회의·전시산업 활성화) 관광도시 부산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산이 관광도시 기반을 넓히며 명성을 높인 것은 최근 10년간의 노력이 가져온 눈부신 결실이다. 부산은 2002년 아시아경 기대회와 월드컵 등 대형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관광 인프라를 크게 확충했다. 여기에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개최하며 부산 브랜드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아시아 최고, 세계 7대 영화제로 도약한 부산 국제영화제와 부산불꽃축제, 시티투어 같은 부산을 알리는 관광·문화상품과 체계적인 마케팅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부산하면 '부산국제영화제'를 떠올릴 만큼 부산홍보와 관광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BIFF는 17회째를 지나며, 불꽃축제와 더불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대표 관광상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부산은 BIFF와 불꽃축제 이외에도 관광객이 보고 즐길 인프라가 풍부하다. 그 가운데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이 시티투어. 시티투어는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알차고 여유롭게 부산명소의 낭만과 맛을 안내한다.

외국인관광객 불편 없는 부산

외국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관광객 증가에 힘을 더한다. 부산시는 부산

거리에 우리말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표지판을 늘렸다. 외국인이 거리를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이다. 부산 곳곳에 안내소를 마련해 관광객의 불편을 줄여나가고 있다. 쇼핑과 관광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해운대 마린·선템시티는 '관광천국 부산'의 명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부산의 길을 걷기 좋은 갈맷길로 기다리고, 온천천과 동천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달맞이언덕에 온천로드를 낸 것도 관광객 증가로 이어졌다. 최근 10년 간 하늘길을 크게 넓혀 고급관광의 대명사로 코루즈선이 부산항에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횡단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도 관광천국 부산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부산혁명 10년 눈부신 성장

부산시는 관광도시 부산의 명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가 큰 MICE(회의·포상관광·대규모 회의·전시산업) 관광도시 부산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산이 관광도시 기반을 넓히며 명성을 높인 것은 최근 10년간의 노력이 가져온 눈부신 결실이다. 부산은 2002년 아시아경 기대회와 월드컵 등 대형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관광 인프라를 크게 확충했다. 여기에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개최하며 부산 브랜드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아시아 최고, 세계 7대 영화제로 도약한 부산 국제영화제와 부산불꽃축제, 시티투어 같은 부산을 알리는 관광·문화상품과 체계적인 마케팅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시는 부산에서만 보고, 즐기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더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상품을 더해 관광산업이 제조업이나 첨단산업 못지않게 부산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대표산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부산이 직할시 승격 50년, 부산혁명 10년만에 반방의 작은 항구도시에서 세계인이 사랑하는, 명품 관광도시로 우뚝 섰다. 김과 바다, 언덕이 조화를 이룬 친해의 관광자원을 잘 가꾸고 키워 세계인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효영 기자

문광부 2013년 한국 관광실행 달성 위한 업무계획발표'

새로운 지역관광 개발 투자...연관 부처와 협력 체계구축

문화체육관광부와 민생부처, 고부가가치,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달성을 위한 신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계획은 ▲공·복합 관광 ▲수용객서비스 ▲국민관광의 세 가지 틀로 나뉜다. 공·복합 관광에서는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및 관광경쟁력 제고로 이를 통해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 이상 대규모 MICE 유치 지원과 MICE 복합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최첨단 유무선 컨벤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범단지 2곳을 조성한다.

또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섬 조성 등을 비롯한 기항서비스 확대, 역사·경관 문화 체험관광, 스키 코리야 브랜드화를 통한 레저·스포츠관광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저가관광의 문제점을 고품격 관광으로 산업구조 자체를 고도화시키는 수용력 증대 정비 부문으로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되고 오는 2015년까지 관광호텔 3만2000실과 게스트하우스 등 대대 숙박시설을 조기 확충하는 등 등급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광경찰제도를 도입해 외래관광객들의 불만요소를 근절하여 지자체의 공공책임인식제 도 활용할 방침이다.

행복과 여유를 찾아주는 국내관광 활성화와 부문의 국민관광부문에서는 국민

이 중심이 되는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내용으로는 대체휴일제, 방학분신제 도입,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올해의 문화관광도시 선정 등이며, 특히 올 6월까지 여행상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여행업계의 숙원 사업인 여행법 제정 등 해외여행 공적 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한 계획도 포함됐다.

문광부는 이와 같은 업무계획은 모두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MICE·의료·생태·한류 관광 등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관광호텔 규제완화, 숙박시설, 휴양단지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창조관광 분야 발굴 및 새로운 지역관광 개발 투자를 유도해 각 2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광부는 관광정책이 거의 모든 부처와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법무부와 국토부를 비롯한 연관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의 MICE·산업관광, 복지부와의 의료관광, 문화재청과는 전통문화 관광, 농식품부, 환경부와 농촌·생태관광, 비자제도는 법무부, 관광숙박시설은 국토부, 관광경찰 도입은 인행부와 협업해 올 6월중 창조경제·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관광한국 비전 을 수립하고 7월부터 11월 사이에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 최대 크루즈 컨벤션 행사 내년 부산서 개최

크루즈산업이 최근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최대 크루즈 국제 컨벤션 행사가 부산에 유치됐다.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아시아 최대 크루즈 국제 컨벤션 행사인 'AACC(A) Asia Cruise Convention) 2014'를 부산에 유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 미국 마이애미 크루즈 박람회 현장에서 행사 주관사인 씨트레이드사와 MOU를 체결한다.

AACC는 조선·해운 전문지 발간과 해운·해양관련 컨퍼런스로 유명한 영국의 씨트레이드사가 주관하는 행사로, 2008년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된 이래 격년제로 소주와 상하이 등 중국에서 개최되어온 아시아 최대 규모의 크루즈 국제 컨벤션이다.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3회 때

에는 2박 3일간의 행사기간 크루즈전시회를 비롯해 선박장비 기항지 여행사 등 크루즈관련 산업 관계자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회의와 전시회로 구성된 행사를 통해 업계 전반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킹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유치된 'AACC 2014'는 북항재개발 사업 등 지역 내 건설되고 있는 신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 부두의 준공시기에 맞춰 내년 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크루즈 국제행사인 'AACC' 유치는 신규 크루즈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부산의 입지 강화는 물론, 세계 크루즈 시장에서 부산항의 인지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부산항이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2013년도 부산관광진흥 계획

관광하기 좋은 매력 있는 국제관광도시 조성

정책방향

관광하기 좋은 매력있는 국제관광도시 조성, 부울경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300만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관광객 모객지향 마케팅·홍보 추진, 고부가가치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스마트한 관광 수용 태세 확립을 추진 방향으로 정했다.

시책1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

- 프로모션, 설명회, 캠페어로 부산을 알리는 등 관광객 모객활동 전개
- 국내·외 관광도시들과 광역권 관광협력증진을 통해 관광객 유치 증대

모객중심 유치활동 전개

- 다양한 마케팅 실시
- 지역의 축제·이벤트 활용 관광객 유치
- 인센티브 관광 유치 적극 추진
- 외국인 관광객 유치효율적인 홍보추진

광역권 관광협의회 교류 활성화

- 국내·외 공동 마케팅
- 2013부·울·경 방문의 해 추진

시책2 크루즈관광 활성화

- 국제크루즈 유치
-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
- 편리한 서비스 지원
- 연안크루즈 활성화
- 기반시설 확충
- 연안크루즈 활성화 제도개선

시책3 국제적 관광거점 조성

- 국제적 관광거점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 부산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 특색있는 관광자원 조성
- 지역특성 활용 관광자원 조성
- 다양한 관광테마 조성

시책4 명품관광상품 개발·활용

- 관광객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맞는 명품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 관광상품을 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하여 지역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명품관광상품 개발

- 30대 명품관광콘텐츠 상품화
- 문화체험관광
- 이경관광
- 스포츠관광

명품관광상품 활용

- MICE 관광
- 의료관광
- 생태관광
- 복지관광(행복마을)

비수기 관광 활성화

-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외국관광객 급감
- 관광상품 개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노력
- 활성화 계획 수립(3월), 필요시 용역추진(5월)

시책5 관광하기 좋은 환경조성

- 대단위 국제행사기간 중 부산 인근 숙박시설 최대한 활용
- 관광안내 시설물을 정비, 고품격 안내서비스 제공으로 관광이미지 제고

숙박시설 확충 및 관광숙당 개선

- 숙박시설 확충
- 관광숙당 개선

관광수용태세 개선

- 관광안내시설물 등 일체 정비
-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관광자원 이야기 제공
- 편리한 관광정보 제공
- 친절 현대서비스 강화

관광객 수용태세 환경개선

- 필요성 : 깨끗한 부산관광 이미지 제공으로 관광활성화 유도
- 사업비 : 100백만원, 기금 50, 시비 50, 구·군에서 추진)
- 추진일정 : 계획수립(2월), 보고회 개최(3회), 결과보고(12월)

시책6 소풍관광 활성화 여건조성

- 국내·외 관광객의 소비활동 증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각종 소풍에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여 관광객의 편의 도모

· 국제크루즈 유치

- 소풍상품 확충
- 외국인관광객 유치
- 소풍여건 조성
- 외국인관광객 유치 소풍 활성화

시책7 부산관광 협력 추진

- 각종 위원회를 실무있게 운영하여 관광정책 개발을 활성화 하고
- 새로 설립된 부산관광공사의 원활한 활동을 통해 외국관광객 유치 증가

· 관광정책 개발 활성화

- 관광진흥위원회 운영
- 외국관광객 유치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부산관광포럼 운영

· 부산관광공사 협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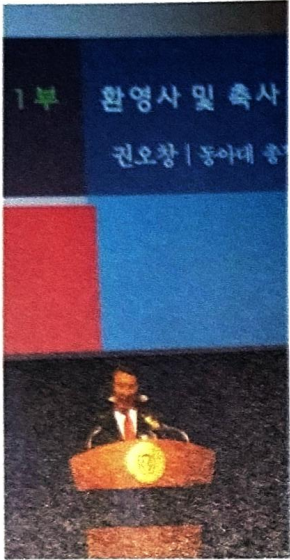
- 공사개요 추진계획

'한일 성신誠信의 길' 만들기 국제학술대회

通

동래부사접왜사도 東萊府使接倭使圖 & 지역문화콘텐츠

부산시 관광협회 후원



▲ 동아대학교 권오창 총장 환영사

태성 부산시 관광협회장 등 관계인사, 시민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일본측도 전 구주산업대학, 시카기카츠키(酒井勝記)교수등 다수가 참석했다.

권오창 동아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질 이시다시피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서경경제를 공유하는 소중한 협력국이저 지금 이 순간에도 문화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웃 국가입니다. 특히 우리 고장 부산은 조선시대 통상사가 오가고, 일본인과 활발하게 교역하던 곳이었으므로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처럼 21세기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해서 양국 간 진정한 성신의 길을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했다.

정희화 국회의원 환영사와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 최차호 부산초량왜관 연구회장의 축사와 대미도시장의 영상으로 된 축하메세지가 있었다.

한일 성신의 길 만들기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달 18일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 국제관 다우홀에서 개최됐다. 국제신문, 정의화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부산초량왜관연구회,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지역문화연구소가 주관했으며 부산시 관광협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동아대학교 권오창 총장, 제중모 시의회 전의장, 차승민 국제신문사장, 최차호 부산초량왜관연구회장, 김은숙 중구청장, 남승우 문화재단이사장, 엄경섭 부산관광공사사장, 양병준 부산박물관장, 이

부산근대역사관 나동욱의 사회로 2부 주제발표

‘동래부사접왜도’의 내용과 미술사적 분석

발표: 이성훈 부산근대역사관

토론: 김정선 동아대학교

‘동래부사접왜사도’의 역사·문화적 가치 조명

발표: 심민정 경경대학교

토론: 양홍숙 부산대학교

초량왜관에서 성신교린의 고찰:

그 역사공간을 21세기 일·한 미래의 길로 잇다

발표: 시카기 카츠키(酒井勝記) 前九州産業大學・福岡日報 會員

토론: 박창희 국제신문·스토리텔링협의회

초량왜관에서 찾는 21세기 일한 ‘성신지도’

발표: 오바타 미치히로(小畑倫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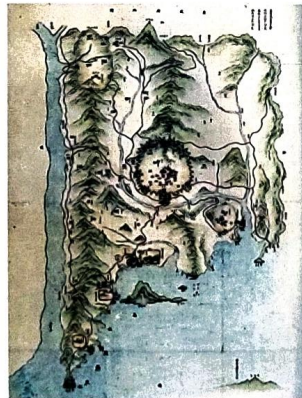
토론: 시카기 카츠키(酒井勝記) 前九州産業大學・福岡日報 會員

‘동래부사접왜사도’를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방안

발표: 서영수(서)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토론: 강석환(사)부산관광협회

▶ 동래부지도



이어 3부는 부산대학교 김동철(좌장) 교수와 종합토론이 있었다.

한일교류의 중심지, '부산의 왜관'

왜관은 왜 생겼을까?

왜와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무런 교제가 없어 수천 명의 일본인이 조선의 각 포구에 머무르는 상황이 되었고, 이들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407년 부산포와 내이포 개발을 시작으로, 1418년 염포(울산을 개항해 주었다. 부산포, 내이포(제포), 염포를 삼포라고 말하며 이곳에 설치되었던 왜관을 '삼포왜관'이라 부른다. 이외 서울에 동평관이 있었다.

조선전기

경상도 삼포 - 비중: 제포(진해) 부산포) 염포(울산)

중심역할: 무역과 생활

서울 동평관(왜관) - 일본 사신의 목적지

중심역할: 외교왕이 있는 서울과 무역

부산포왜관

현재의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대에 소재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는 북방에 있는 동래현 성. 군사적으로는 서방에 있는 방화대영의 관의 하에 있었다. 1494년 에는 450명 정도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1510년의 삼포의 난에 의해 일시 폐쇄되었지만, 1521년에 재개되었다. 부산포왜관은 1592년 임진왜란 전까지 존속하여 삼포왜관 안 에서는 가장 긴 시간동안 일본인이 살았다.

조선후기

절영도 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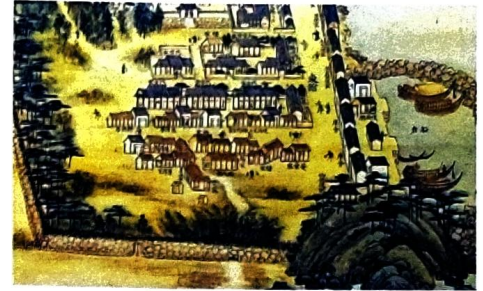
임진왜란으로 조일 양국의 관계가 단절되어 왜관도 폐쇄되었다. 그 후 국교가 회복되면서 양국 사절이 오가자 왜관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육지와 약간 떨어진 부산 절영도(영도)에 임시왜관이 설치되었다.

두모포 왜관

조만간 국교가 재개될 것이니 국교재개 후를 대비하여 왜관을 육지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새로운 왜관의 필요성이 1609년에 제기되었다. 국교 재개 이후 일본 사절을 접대할 장소로 조선전기의 부산포왜관이 현재의 증산부근 전란 후 왜관 터가 군사기밀지역인 부산진성에 포함되어서, 다른 지역을 모색하여 부산진에서 서쪽 5리 떨어진 곳에 새로운 왜관을 정하였다.

초량왜관

조선시대 왜관은 일본과의 외교·무역의 위한 공간이었다. 1547년 이후 부산포가 유일한 개항포구라는 점에서 왜관은 '부산에만 있는 것'이라는 특



▲ 초량왜관도

수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왜관의 존속기간이 약 270년에 이르고, 왜관 공간이 1878년 일본 전라거류지로 승계된 이후, 이지역이 도시중심지로 성장하여 원도성(原都心)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지역성, 역사성도 인정되고 있다.

왜관은 위정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사회, 지역민과는 철저하게 분리해야 하는, 통제 해안만 하는 공간이었다. 실제로 왜관 주변으로 조선 군인의 초소를 세우고, 이중성으로 왜관을 통제하였다. 이는 약조제찰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678년 초량으로 왜관이 이전된 후, 왜관 통제를 한층 강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과 일본인의 접촉·교류가 부단하게 이어졌다. 나아가 1738년 작성된 灣門節目 에는 당시 일반 지역민의 왜관과 그 주변에서 지역을 담당한 조선이 직역자들의 왜관교류의 모습이 잘 나타나있어 다양한 계층의 조선인이 왜관과의 접촉·교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신誠信의 길이란?

집에는 일본산 제품, 일본산 부품으로 만든 물품하나 없는 집들이 없을 정도로 일본 물품과는 이미 친하다. 젊은이들은 일본문화에도 익숙하다. 하다 못해 일제 문구류도 지친인 상태이다. 이러한 현재적 상황에서도 대중매체를 통해 나오는 일본은 다분히 부정적인 일본 이다. 일본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것은 거의 국민적 정서에 가까운 정도이다. 목도 등 국가 영역 문제가 거론되면 이러한 정서를 더욱 거세어진다.

이렇게 불균형하고, 불규칙적인 일본 인식은 과거에도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동래부사접왜사도에는 조선국왕의 대리자이나 외교관인 동래부사가 교린의 예에 따라 일본사절을 응접하려 가는, 그리고 응접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비록 평화로운 모습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설문 통과 모습이 빠져 드러지지 않고 세 점 모두에 그려져 있다. 통상사가 파견되고 동래부사가 일본사절을 응접하지만 여전히왜관과 동래 사이에는 큰 결절이 생겨났다.

이상의 이해를 바탕에 두고 성신의 길을 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결절을 21세기에는 마련하지이다.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성신을 외치다보면 소통의 길은 생겨날까? 진실된 믿음(성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김봉오 bj@busan@hanmail.net

이태섭 부산광역시관광협회장 감사패 수상

부산관광협회음식업 분과위원들의 친목모임인 관우회회장 정삼남 모두모두 동원대표에서는 2013년 4월 30일(화) 초음동 소재 모두모두농원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관우회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광역시관광협회장이자 이태섭 게스트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태섭 회장은 열악한 영업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는 부산관광 음식점 대표들의 친목모임을 결성하고 초대회장으로서, 회

원들의 성공사세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창구로서 관우회가 뿌리 내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대회장인 정삼남 대표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수여하고, "관우회가 회원들의 친목도모, 우수업체 벤치마킹, 회원들의 성공 사례 발표 및 공유, 신규회원 확충 및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해 관광협회 음식업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임이 될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2대회장 정삼남(가운데) 대표가 초대회장을 역임한 이태섭(왼쪽)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취업성공률 높다.

부산관광컨벤션포럼이 운영하고 있는 '마이스'계 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높은 취업 성공률을 보이며 관련 산업 구직 희망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2009년 3월 고용노동부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부로 시작된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그 해 5월 1기 수료생을 배출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7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그 동안 누적 교육생이 271명에 달하고 235명이 2개월 간의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 중 154명이 마이스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 취업 성공률이 이처럼 높다보니 교육 과정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국제회의기획자(CEO)와 전시회 기획자(PEO)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2월 모집한 CEO(Convention & Exhibition) 과정은 29명 정원에 106명이나 지원해 3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호텔과 여행사 등 시사 교육을 위해 6월 중 25명을 모집하는 M(Meeting & Incentive) 과정 역시 벌써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취업률과 인기가 높은 것은 철저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2개월간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커리큘럼은 전공 70%, 응용분야 20%,

교양 분야 10%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 대부분은 관련 실무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된다. 우수기업 현장 견학과 크루즈 실습, 호텔 서비스 아카데미, 기획서 콘테스트 등도 교육과정에 포함돼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교육에 참여하는 70여 명의 강사 중 80% 이상이 현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 전문가로, 현장 업무와 전문적 운영 능력 등이 뛰어나다. 이로 인해 강사로 참여한 기업 실무자들이 수료생들을 현장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09년 일자리 창출 지역우수사례에 선정됐고 2010년에는 전국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011년에는 고용노동부 주최로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고용정책협의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공적 정착에 고무된 부산관광컨벤션포럼은 올해 2월 '호텔 하우스키핑 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이미 25명을 선발해 5월까지 100시간의 실무 및 이론 교육에 들어갔다. 취업률은 7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관광컨벤션포럼 관계자는 여건이 된다면 교육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 수료생들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높아진 한국 위상' 외국인 몰려온다.

강남스타일 등 호재 만발... 관광객 늘자 객실 요금도 2%나 경총

한국의 호텔 객실 평균 가격은 17만 4284원으로 전년 대비 2%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스닷컴은 최근 '2012 호텔가격지수(HFI·Hotel Price Index) 미디어 브리핑을 갖고 전세계 호텔 객실 평균 요금이 2011년 대비 약 3%가량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호텔가격지수'는 2004년부터 전 세계 주요 도시의 호텔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자료다. 발표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객실 요금이 지난해 비해 약 21% 상승해 44개국 중 평균 호텔 객실 가격 상승률 1위로 뽐냈으며, 대만(17%), 핀란드(14%)가 뒤를 이었다. 2% 상승한 한국은 18위를 차지했다. 호텔스닷컴은 한국의 객실 요금 상승 요인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요 급증 ▲강남스타일의 세계적 히트 ▲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지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연화 약세를 꼽았다. 객실 요금이 크게 떨어진 국가도 있었다. 폴란드는 객실 요금이 18% 하락했으며, 그리스(-17%), 이탈리아(-13%) 등 유로존 경기 침체 주요국들이 일제히 객실 요금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에서 호텔 평균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는 싱가포르(2만7863원)였다. 스위스(22만5572원), 홍콩(21만2991원), 러시아(20만7966원)가 뒤를 이었다.

호텔스닷컴 한국 및 일본 마케팅 총괄 앙성호 이사는 "지난해 전세계 호텔 가격은 호텔스닷컴이 추산한 호텔가격지수 기준으로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다"며 "올해에도 해외 여행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 일본인 관광객 제치고 1위 등극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을 방문, 처음으로 일본 관광객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분기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 감소한 69만8천 명에 그친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37.8% 늘어난 72만3천 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였으나, 중국인 관광객은 반대 양상을 보였다. 일본인 관광객 감소는 엔저와 '북한 리스크', 독도 영유권 갈등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인은 경제성장률로 소득수준이 높아져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에 나서면서 가

깝고 한류로 친숙한 한국을 많이 찾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회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상위 60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2%가 이 기간 일본인들의 관광예약이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보다 늘었다거나 비슷하다'는 응답은 각각 3.4%에 그쳤다. 국내 1만5천여 개사가 가입돼 있는 한국여행협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문을 보내 '여행인의 상대적 불균형을 우려할 수준의 절반만 상할'이라며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판촉 행사와 광고 홍보비 지원을 촉구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공모에 부산시 참여

전시 컨벤션 관광사업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기대 한국과 중국·일본의 문화교류 거점 도시인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공모에 부산시가 참여했다. 부산국제영화제(MIFF)와 조선통신사 축제 등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추 역할을 해 온 부산시가 선정될 경우 향후 한·중·일 문화교류의 창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공모에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문광부에 따르면 접수 마감 결과 부산시를 비롯, 광주광역시 전주 경주 등 6개 지자체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중·일 3국 사이의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를 위한 거점 도시를 선정해 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이다. 올해 나라이마다 1개 도시씩을 선정하고, 2015년부터는 장관회의가 개최되는 나라에서 1곳씩을 추가로 지정해 나가기로 지난해 3국 문화장관회의에서 합의했다. 올해 처음으로 문화도시에 선정되면, 사무국이 설치돼 인적·물적 자원과 문화교류 정보가 집중되는 효과와 함께, 전시·컨벤션·관광산업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벅스코 일대 마이스(MICE) 복합지구로 조성 추진

지역특화 전시·컨벤션 지원 늘려 시너지 효과

■마이스산업 육성계획

부산시가 MICE회의의 관광, 국제회의,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운대 벅스코 일대를 마이스 복합지구로 조성한다. 핵심 컨벤션시설인 벅스코를 중심으로 인근 누리마루APEC하우스, 사립미술관, 영화의전당, 쇼핑몰, 호텔 등을 묶어 마이스 참가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동시 충족시키는 통합서비스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벅스코 근처엔 도심 공항터미널, 마이스광장 같은 시설을 추가한다. 싱가포르 마다라, 베이센트처럼 업무와 쇼핑, 휴양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합지구 건설과 함께 흩어져 있는 관련 시설의 공간 재배치를 통해 집적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벅스코 주차장에 광장을 만들고 호텔과 쇼핑몰을 연결하는 마이스로드 건설 등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00년까지 부산을 세계 10대 국제회의 도시로 키워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마이스 인프라 및 산업간 강화,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통한 국제행사 유치 역량 강화, 시민 참여 제고 등 5대 전략과 10대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해외 마케팅 지원, 협동조합 설립지원 같은 부산시의 컨벤션기획사(PCO)와 전시기획사(PEO)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1억원을 들여 국제회의의 유치를 지원하고, 3억5천만원 이하 전시컨벤션 행사의 경우 타 지역 업체 제한제



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부산업체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교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4개 분과로 구성된 마이스협동조합 구성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달 초 정원을 축소했던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의 전시컨벤션과를 3개 팀으로 구성된 마이스산업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부산시는 이밖에 부산 국제보트전시회나 해양레저스포츠쇼 같은 부산의 전략산업과 연관된 유망 전시·컨벤션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할 계획. 스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중대형 포상관광 유치 △마이스 유치·개발 총괄기능 강화 △마이스 주관행사 추진 △글로벌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 같은 과제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 1분기 대형 마이스(MICE) 행사 12건 유치

관광업계와 네트워크 구축,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으로 세일즈 펼칠 것

부산관광공사가 올 들어 3월 말까지 12건의 대형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행사를 유치, 참가자가 4만4천여명에 달한다.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1~3월 3개월간 MICE 유치활동을 통해 2013 허벌라이프 스펙타클라 2013 대안 왕중그룹 인센티브 2014 중화권 임웨이 인센티브 2014 국제크루즈컨벤션 등 12건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MICE는 참가 인원 1만명 이상 포상관광 2건과 1천명 이상 국제회의의 2건 등 모두 굵직한 행사. 지난 1월 '허벌라이프 스펙타클라' 참가자 1만3천여명이 이미 부산을 찾았고, 내년 5~6월 중 개최될 '중화권 임웨이 인센티브'에는 2만5천여명이 참가한다. 2013 대안 왕중그룹 인센티브'에 1천700명, 2013 대한만국과학기술연차총회'에 1천200명, 2014 국제크루즈컨벤션'에 2천명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부산관광공사는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이달부터 국내·외 기업 포상관광과 국제회의 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선 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업 포상관광 유치를 위해 직원 2천명 이상의 대형 그룹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중 중공국의 대형 기업 인센티브(3천500명 규모) 실시단의 부산 방문에 대비,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 부산 유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국제회의의 유치를 위해서도 해외 국제회의의 기획자와 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는 이와 함께 해외 주요 도시의 관광공사 및 컨벤션전문가와 협력·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컨벤션 관련 전시회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국제회의와 기업 포상관광 유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부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호텔·회의시설 등 컨벤션 인프라를 갖춰 MICE 유치에 충분한 경쟁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관광업계와의 탄탄한 네트워크 구축,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통해 최고의 MICE 도시로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야외극장 무료상영, 산책 데이트 코스로도 각광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야외극장 무료 상영을 계속한다. 지난해보다 첫 상영 일자를 앞당겼고 횡수도 늘었다. 5월과 6월에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8시, 7월부터 9월 둘째 주까지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무료 상영 10회 상영했는데 시민 2만여 명이 야외극장을 찾았다.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은 상징성이 강한 공간이기도 하다. 야외극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부산국제영화제(BIFF).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한 BIFF 개·폐막식이 이곳에서 열린다. 야외에서 펼쳐지는 BIFF 개·폐막식은 세계 영화인이 부러워한다. 수영장과 스크린이 어울려 보여 주는 경관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야외극장 스크린은 가로 14m, 세로 13m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영화의전당 측은 "자동차극장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유일한 고정식 스크린"이라고 말했다. 음향이나 조명 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록부터 클래식까지 소화할 수 있는 첨단 기기를 갖추고 있다. 영화의전당은 영화는 물론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야외극장을 기점으로 자부심이 강하다.

야외극장은 객석 규모는 대단하다. 고정식 좌석이 2천500석이지만, BIFF 때

나 공연이 있을 때는 좌석을 추가로 설치한다. 최대 5천500석까지 가능하다.

야외극장은 평소에도 개방돼 있다. 영화의전당 측은 "산책하거나 데이트 코스로 좋다"고 했다. 또 '수영장과 에이텍 나루공원이 야외극장과 연결되도록 지하도가 만들어지면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환상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영상도시 부산에 '영화의 거리' 조성

영화의전당~해운대해수욕장~문탠로드 8km 구간
영화 명장면 벽화·배 모양 전망대·레드카펫거리 등

영화·영상도시 부산에 '영화의 거리'가 생긴다. 해운대구는 센텀시티 영화의전당에서부터 해운대해수욕장, 문탠로드에 이르는 8km 구간을 영화의 거리로 만든다. 해운대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공모에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당선돼 국비 8억원을 지원받는 등 국비와 시·구비 등 16억원을 들여 영화의 거리 조성에 나선 것이다.

'영화의 거리'는 영화와 만나고, 친해지고, 놓고, 이별하고, 영화를 추억하는 길을 주제로 다섯가지 스토리로 꾸민다. 영화 마니아들이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해운대구는 우선 올해 말까지 5개 구간 가운데 마린시티에서 동백섬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 구간을 먼저 완성할 예정이다. 세 번째 구간은 마린시티 제방에 트릭아트와 슈퍼그래픽으로 영화의 명장면을 관람하면서 중간지점에는 전망데크와 쉼터를 만들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캐리비안의 해적 배모양을 본떠 만든 전망데크에 오르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빠져든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특징이다.

나머지 구간은 관광객이 레드카펫을 걸으며 무비스타가 되어보는 레드카펫 거리, LED 스크린으로 BIFF의 성장스토리를 보여주는 역사의 길 등



비롯해 악보 보도, 음악분수 등이 있는 이색 거리로 만든다.

해운대구는 영화의 거리 조성과 함께 해운대 단편 영화제를 개최한다. 사나리오를 공모해 12월 영화의전당에서 상영할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영화를 만들어보는 '시민영화학교'와 영화 해운대와 '도둑들' 촬영지와 관광영상을 둘러보는 해운대 영화촬영지 투어도 운영할 방침이다.

김대현 기자

부산시 문화정책, 민간 주도 · 현장문화 위주로 바꾼다.

부산의 문화정책 정책방향이 민간주도 ·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바뀐다. **현장문화적 문화 인프라 구축이 우선단계에 접어들** 만큼 문화정책을 시민 모두가 향유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부산광역시 지난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문화도시 부산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장문화적 문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인 2020문화도시 부산 비전을 선포했다. 온 시민이 향유하는 부산문화 융성시대 개막을 선언한 것이다.

부산시는 우선 문화정책특별보좌관제를 도입한다. 문화체육관광국(국장 3급)과 창조도시본부(부장 2급) 업무를 통합해 문화창조본부(본부장 2급)로 확대 개편한다. 부산문화회관 · 부산문화재단 기관장은 민간에 맡긴다. 당장 7월부터 부산문화회관장을 개방형으로 전환, 민간전문가 참여가 가능해진다. 부산문화재단은 내년부터 민간 이사장 제원 이사장은 부산시장도 전환한다.

문화예술 예산도 크게 늘린다. 현재 전체 예산의 1%대인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내년에는 2%대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3%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동체 운동을 추진한다. 부산대표 공연상품을 개발하고 소극장과 지역 공연기획사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역 공연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공간도 확보한다. 운산중학교 등 도심지역 폐교를 활용해 창작촌을 개설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거점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문화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한 것은 21세기 문화도시 부산도약을 위한 대내외적 환경이 충분히 성숙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핵심직 부산시장이 밝힌 것처럼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작업이 4~5년 인력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데다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비엔날레 등 어느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자신감이 바탕이 됐다. 허 시장은 "오페라하우스와 부산현대미술관 등 시설 인프라의 완공에 앞서 이들 시설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미리 조성하

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의 역사를 담은 문화콘텐츠도 적극 개발한다(사진은 임란 당시 동래성 주민들의 항전시를 토대로 만든 '동래성 붉은꽃'). 부산시의 문화정책 변화는 크게 세 분야에서 진행된다. 품격있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추진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화정책 담당 행정기구의 개편이다. 연내에 문화정책을 총괄하게 될 문화정책특별보좌관을 신설한다. 특히 신복도로 르네상스와 도로재생 등 창조도시본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조성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5년에는 이들 업무와 사업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흡수시켜 문화창조본부로 확대 개편하게 된다.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재단 등 문화예술전담기관에 민간인의 참여도 가능하게 된다. 당장 7월부터는 부산의 공연문화 콘서트타워 역할을 하는 부산문화회관 관장을 개방적으로 전환해, 관련 전문가에게 문화행정 수장을 맡기게 된다. 현재 부산시장이 맡고 있는 부산문화재단의 이사장도 내년부터는 민간 이사장제로 전환된다.

시민 중심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된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하고 예술인이 자유롭게 창작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특별히 부산을 시민문화 커뮤니티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당장 올 하반기 부산문화재단을 통해 문화예술 동아리 네트워크협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과 시민커뮤니티 거점공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에는 4억5천만 원의 예산이 할당됐다.

이와 함께 문화 소외 계층 동아리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현장에 관한 수요자와 공급지를 연결하는 '행복도우미' 문화 콜센터도 설치된다. 동네별 · 아파트별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역 문화활동 공동체로 육성하는 등 시민문화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해 시민을 문화의 중심에 두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문화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기반을 마련하는 등 창작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전국 최초로 부산의료원을 예술인 긴급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예술인 예우 및 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해 예우방안 등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효영 기자

중화권 관광객수, 작년 일본 추월

외국인 관광객 261만여명중 72만여명 찾아, 전체 27.5% 차지

부산이 한국대표 MICE(회의 · 포상관광 · 대규모 회의 · 전시) 도시로 우뚝 섰다. 부산은 지난해 3천710건의 MICE 행사를 개최해 3천576건의 서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한국관광공사의 MICE 산업통계조사 · 연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내 주요도시의 MICE 행사 개최건수는 부산 3천710건, 서울 3천576건, 경기 2천856건, 대구 2천17건, 강원 1천910건, 광주 1천158건 등의 순이다. 부산은 2010년 2천495건에서 무려 1천215건이 늘어났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12 IWA 세계 물 회의(World Water Congress&Exhibition) 부산총회' 개막 모습. MICE 참가자의 지출규모도 부산은 주요도시 가운데 내국인 방문 소비액이 1인당 160여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외국인인 320여만원을 지출, 서울에 이어 2번째, 부산이 서울을 제치고 국내최고 MICE 도시로 올랐던 것은 벅스코와 함께 부산지역 호텔, 대학 등 행사 개최지를 다양화하고, 부산시 역시 MICE 산업 집중육성에 나선 결과다. 부산시는 관광컨벤션산업을 4대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 집

중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분석한 '주요 장소별 국제회의 개최현황'에 따르면 부산의 3곳(벅스코 · 노보텔엠버서더부산 · 파라다이스호텔부산)이 10위권 내 순위에 올라 7대 특 · 광역시 중 가장 많다. 특히 노보텔엠버서더부산은 컨벤션시설 증코엑스, 벅스코에 이어 3위를 차지해 전국 호텔 가운데 가장 많은 개최건수를 보였다. 다른 시도의 전문컨벤션시설 보다 더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부산은 지난해 아시아 · 태평양에이츠학술대회(4천명),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2천500명), 월드사이버게임대회(1천명), 세계항만총회(1천명) 등 352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부산국제제트쇼, 부산국제관광전, 미린위크 등 대형전시회와 대규모 MICE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올해도 국제라이온스클럽대회(5만5천명), IWA세계물회의(5천500명), 아시아태평양안과학술대회(4천명)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성공 개최해 부산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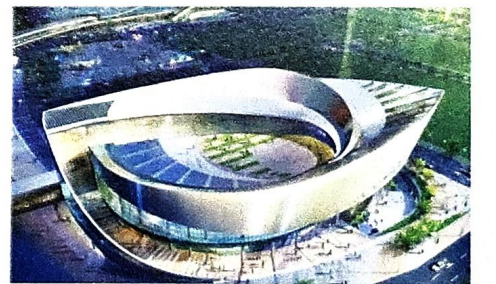
벅스코, 국내 최초 U-컨벤션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최첨단 국제회의 시설 갖춰

최근 한국관광공사 집계 결과 부산은 지난해 3천710건의 MICE 행사를 개최, 3천576건을 연 서울을 제쳤다. 경기, 대구, 광주 등은 한참 앞질렀다.

부산이 국제행사 · 포상관광 도시로 인기를 끄는 것은 다양하고 풍부한 컨벤션 및 숙박시설, 비즈니스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건, 완벽한 지원 체계 등을 꼽을 수 있다. 부산은 무엇보다 국내 처음 U-컨벤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첨단 국제회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치른 벅스코와 누리마루 APEC 하우스, 행사장 인근의 5개 특급호텔이 가진 국제회의장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해 6월엔 제2 벅스코를 개관, 규모면에서 서울 코엑스를 능가한다. 수려한 경관을 간 숙박시설도 풍부하다. 특급호텔부터 유스호스텔까지 참가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숙박시설 5만5천여개가 있다. 특히 벅스코 인근 해운대 지역엔 9천여개의 객실을 확보, 참가자들의 동선을 크게 줄여준다. 회의장 인근에 세계최대 규모의 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몰려 있다. 자동차와 조선, 기계공업 단지, 부산항이 가까워 국제행사 참가자들이 산업시찰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KTX 완전개통으로 서울까지의 이동시간도 크게 줄었다. 역사 · 문화 · 산업이 함께하는 도시라는 점도 매력적이다. 부산은 유엔기념공원, 인근 경주와 양산의 석굴암 통도사 같

은 막사가 살아 숨쉬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 부산국제음악제 같은 문화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축제의 도시다.

원활한 교통과 최상의 경호, 완벽한 자원에도 부족할 수 없는 강점이다. 2002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2006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2010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회의, 2011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2012 라이온스세계대회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개최하며, 경호 · 서포터즈 · 통역 활동 등에서 이미 검증된 도시로 손색이 없다. 이효영 기자



여권 발급 절차 쉬워지고 빨라진다

'Paperless' 제도 통해 영수필증 생략

앞으로 여권 발급 절차가 더 빨라지고 쉬워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날 27일 국민행복, 화합의 새 시대를 여는 신외교로 2013년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여권 신청 방법과 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사전 사후 보호 시스템 최적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먼저 해외여행 급증에 따라 여권이 국민생활 필수품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을 감안, 현재 다소 복잡한 양식의 여권발급신청서에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해 종이 영수필증까지 구입해야 하는 여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신분증 제시만으로 여권신청이 가능한 'Paperless' 여권 신청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 오는 2016년까지 모든 여권 청구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Paperless' 제도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 여권 신청서 기재 및 구비서류 제출 생략 ▲ 여권수수료 영수필증 구입 생략 ▲ 여권접수 창구에서 얼굴 영상 직접촬영 서비스다. 현재 17개 지자체 및 7개 재외공관에서 시행하는 것을 확대해 올해 안으로 국내 43개 지자체, 24개 재외공관에서 시행하고, 2016년까지 전 지자체와 재외공관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사전·사후 보호시스템 최적화 작업도 시행한다. 현재 국민의 해외 여행 진출 증가 및 태러, 내전, 자연재해 등 빈발에 따라



해외 시간 시
고 급증과 질
적 복잡화에 따라
향후 재외 국민 보호
를 위한 체계적 대응 예방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으로 해외여행시 국

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홍보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올 상반기 내에 채널 구축을 YTN외 KBS로 확대하고 인터넷 및 뉴미디어, 여행안내 책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법률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법률지원 제도도 확대해 향후 매년 5개 공관에서 추가 시행 예정이며 현재 50개 공관에서 올해 안으로 55개 공관, 이후 2017년까지 75개 공관으로 확대된다. 원격지원 및 비상수급공관 국가에서의 영사서비스 신속 제공을 위해 매년 5~10명의 영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으로 현재 108명에서 올해 안으로 127명, 2017년까지 155명씩 영사협력원을 증원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들이 꿈은 가족 여행지 1위 사이판

휴양시설·짧은 비행시간 강점, 2위 필리핀 세부 3위 태국 푸켓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항공사 승무원들은 어느 곳을 최고의 가족 여행지로 꼽을까.

아시아나항공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승무원 1825명을 대상으로 '자녀 동반 승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사이판이 1위(4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이판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레저·휴양시설을 갖춘 관광지로서 자녀들과 함께 떠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이동거리(비행시간 4시간) 등이 강점으로 꼽혔다. 필리핀의 대표적 휴양지인 세부(13%), 태국 푸켓(11%)이 그 뒤를 이었다.

효도 관광 여행지로는 태국 방콕(33%)이 1위를 차지했다. 태국 방콕은 다양한 먹을거리와 이색적인 관광 명소, 여행 피로를 풀 수 있는 마사지 등으로 높은 연령층의 승객에게 인기라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밝혔다. 온천으로 유명한 일본 후쿠오카(13%), 동아시아의 하와이와 불리는 일본 오키나와(8%)가 그 뒤를 이었다.



부부만을 위한 여행지로는 푸켓(26%), 허니문 추천 여행지로는 금빛 해변의 골드코스트와 가까운 시드니(29%), 나 홀로 여행객을 위한 곳으로는 낭만이 가득한 예술도시 파리(33%),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지로는 화려한 도심 야경으로 유명한 홍콩(27%)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김해공항 국제선 하늘길 대폭 늘어난다

올해 11개 도시 34편 신·증편...국제선 청사 확장 등 시설도 확충

동남부권 중추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이 올해 대거 늘어난다. 최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김해공항 국제선이 11개 도시 34편 신·증편(신설 7개 도시 19편, 증편 4개 도시 15편) 된다. 올해 초 이미 중국 서안행 4편이 신설됐고 니리타와 홍콩행 등 4개 도시 15편이 증편됐다. 이어 쿠알라룸푸르행 등 3개 도시 15편이 신설될 예정이다. 부정기 노선으로 중국 연길행 등 3개 도시 항공편도 신설될 예정이다.

국제선 신·증편과 함께 국제선 시설도 확충된다.

우선 1천119억원을 들여 탑승교와 수화물 벨트 등을 늘리는 국제선청사 확장사업이 오는 8월 설계용역을 마무리 짓고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연말까지 착공 예정이다.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도 11월에 할주로 용량 증대 설계 완료 및 항행안전시설 설치 후 2014년 1월부터 주중 16회에서 20회로, 주말 24회에서 32회로 늘어난다.



에어부산

부산-시안 주4회 운항

에어부산이 지난달부터 부산-시안 노선 운항을 시작했다. 주 4회(수·목·토·일) 단독 운항하며 최근 도입한 10회기 에어버스사의 A321-200을 투입, 좌석간격을 넓게 확보하고 오디오 및 LCD 모니터를 통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춰 승객들에게 편안함과 쾌적함을 제공한다. BX341편 부산발 시안행(22:05 출발, 현지시간 00:25+1 도착) 첫편 운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

시안은 중국 역사상 1000년 이상 수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던 곳인 만큼 유적들이 풍부해 도시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관광지로 손색없는 곳이다. 중국 13개 왕조의 수도로서 유구한 역사가 살아 있는 도시이며,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국 서부 대개발의 중심도시다.

에어부산 측은 "시안은 지난 해 왕복 42회에 걸쳐 부정기편을 운항하여 평균 86%의 탑승률을 기록할 만큼 고객으로부터 큰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번 정기편의 경우 취항 초기인 4,5월 항공편이 이미 90%에 가까운 예약율을 나타내며 손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어부산은 지난 달 한국과 가장 교류가 많은 상공성 최대의 상공업도시 칭다오 취항으로 중국시장에서의 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이제 문화적 정통성과 경제 중심도시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시안 취항을 계기로 중국 본토에서 에어부산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에어부산은 지난 달부터 부산-석가장 부정기편 운항(주2회)을 시작했고, 이후 일본·중국·동남아 등 부산 기점 중거리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에어아시아엑스

부산~쿠알라룸푸르 7월부터 주4회 운항

에어아시아그룹 계열인 장거리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 엑스' 가 오는 7월 15일부터 주 4회 부산-쿠알라룸푸르 노선의 운항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에어아시아 엑스의 부산 노선은 부산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최초의 노선이면서 말레이시아와 다른 곳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독특히 할 것"

주 4회 운항되는 부산-쿠알라룸푸르 노선은 부산 및 주변지역 여행자들에게 동남아와 호주까지 잇는 에어아시아 그룹의 광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남아시아와 호주지역 여행자들에게는 부산뿐 아니라 제주도로 가는 관문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에어아시아 재팬이 부산-니리타 노선, 에어아시아 엑스가 니리타-쿠알라룸푸르 노선을 운영 중으로 한국과 일본을 함께 여행하려는 승객들에게 최적의 연결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하는 문화마을로 우뚝!



부산의 산토리니. 골짜기는 마추픽추로 불리는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이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하는 문화마을로 우뚝 섰다.

감천문화마을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2 지역·전통문화브랜드 우수상 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브랜드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생겼다. 대상은 경기도 성남시의 사랑방문화마을이 차지했다.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2 지역·전통문화브랜드 우수상 을 수상했다. 감천문화마을은 낙후지역인 산복도로 마을이 아름답게 변신, 국내외 관광객 수만 명이 찾아오는 문화관광 명소로 탈바꿈한 곳 지역 주민들과 문화예술인, 학계, 지자체가 힘을 합쳐 독특한 경관과 특색 있는 문화를 갖춘 마을로 거꾸로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2012 지역·전통문화브랜드 시상식은 지난달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지역문화재단 지속공유 포럼 에서 감천문화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함께 인센티브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받는다.

부산시 창조도시기획관계관은 "이번 수상은 마을 본래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의미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문화사업, 높은 주민참여율, 행정기관의 열정적인 관심이 더해진 결과"라며 "현재 감천문화마을의 최종적인 모습을 정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천문화마을이 우리나라의 문화브랜드를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천문화마을은 1960년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거주지로 형성됐다.

산복탈이란 지형적 특성상 주민들이 생활환경으로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면서 부산의 대표적 달동네가 됐다. 하지만 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않는 계단식 주거형태와 구석구석 이어진 미로 같은 골목길 등 옛 도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문화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관과 역사적 자원을 적극 활용키로 지역 주민들과 문화예술인, 학계, 지자체가 뜻을 모아 지속적인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이제는 국내외 '도시재생'의 롤 모델로 각광받는 마을로 변모했다. 감천문화마을은 이제 산복탈 집들의 일록달록 파스텔 색으로 채색된 낮은 지붕들로 이국적인 청취를 더하고 있고, 골목과 담장마다 예술작품들이 자리 잡고 있어 문화마을의 향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감천문화마을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꿈을 꾸는 마추픽추, 2010년 미로미로 골목길 프로젝트'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문화마을의 첫 발을 내딛었다. 2011년부터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 김내카페와 커뮤니티센터인 감내어울터 문을 열었다. 최근에는 작은 박물관·미술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마을주민들이 문화마을 만들기기에 적극 참여해 주민협업체를 발족하고, 그에 발맞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진정한 주민참여형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 결과 감천문화마을은 중국·일본 관광객 등 연간 7만여명이 다녀가는 명실상부한 '문화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세계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도 2년 연속 열렸다. 아프리카 우간다, 탄자니아 등의 고위 공무원단이 마을재생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녀가기도 했다.

김대현 기자

동구 초량 산복도로에 관광안내소 및 휴식공간 탄생 1층 지역주민 만든 수공예품 판매점 설치 2층 부산항 야경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부산 동구 산복도로 방문객들을 위한 관광안내소와 휴식공간이 탄생했다. 부산시는 최근 산복도로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복도로 종합체험센터 까꼬막 개소식을 개최했다.

동구 초량동에 조성된 까꼬막은 2011년 산복도로 마을기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동구 10지구 주민협의회 주도로 설립이 추진됐다. 산복도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발생하는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지역수복형 마을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까꼬막은 서구 서대신동 꽃마을 '문화예술 전시관'과 사하구 감천동 감천문화마을 김내카페 에 이은 세 번째 산복도로 마을기업이다.

경상도 사투리로 '산복탈'을 의미하는 까꼬막은 부지면적 74㎡, 지상 2층 연면적 63.26㎡로 건립됐다. 외관은 한국전쟁 당시의 판잣집을 형상화했다.

1층에는 관광안내소와 지역 주민들이 만든 수공예품 판매점이 마련되고, 2층에는 산복도로 체험관광객들이 부산항과 산복도로의 야경을 한눈에 조



망할 수 있는 휴식 및 전망공간이 마련된다.

또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들을 산복도로 문화해설사로 배치해 체험 관광객들에게 산복도로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복도로 마을기업인 까꼬막은 지역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참깨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익을 담당할 뿐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립심과 진정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중구·영도구, 영도다리 전시관 유치 경쟁 도개 장면 보러 많은 관광객 몰려들 것으로 기대

부산 영도구와 중구가 연말 복원이 끝나는 영도대교의 전시관 유치경쟁에 뛰어올랐다. 다리돌 돌어올리는 도개 장면을 보러 수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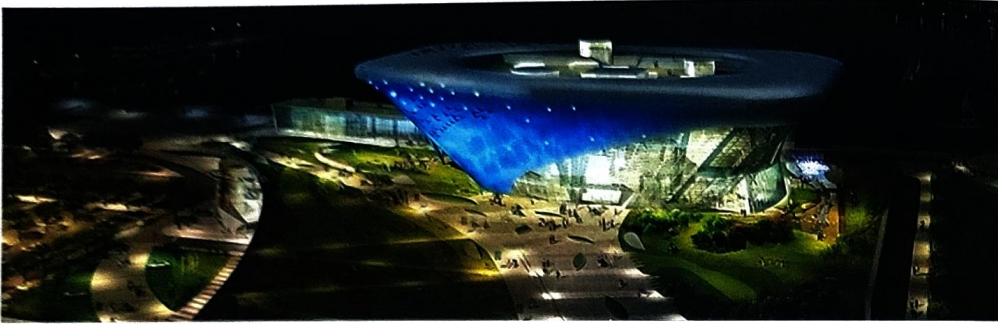
시는 영도대교 전시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오는 6월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다리를 걸거올 때 나온 주요 부지재를 보관하고 전망대로 설치할 예정이다. 건축비는 96억 원으로 추산된다. 선정은 전시관의 입지, 시 일부 문화재위원들은 중구 쪽인 영도대교 아래 점점 몇 채를 매입해 전시관을 짓자는 의견을 내놨다. 중구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소유로 점점 옆인 중앙동 1가 62의 28 일대 750㎡ >중앙동5가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을 추천했다. 반면 영도구는 영도대교 기암비·현인노래비와 가까운 영도경찰서 근처 공터(대교동1가 46·47번지) 1038㎡(315평)가 최적지라고 맞서고 있다.

두 차체단체의 신경전은 이미 뜨겁다. 영도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2회 임시회에서 영도대교 전시관 영도 건립 촉구 결의문 을 채택했다. "영도대교는 영도의 역사이자 자존심이다. 매년 영도다리 축제도 열고 있다"는 게 결의문의 핵심이다. 이에 중구는 "영도다리를 들어올리는 도개시일이 우리 쪽에 있다. 관광객의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반발하고 있다.

영도다리는 1934년 11월 23일 국내 유일의 도개식으로 건설됐다. 당시 부산인구 15만 명 중 6만 명이 개통식을 보러 몰려들었다. 연말 복원이 되면 과거처럼 다리를 들어올리는 장관을 볼 수 있게 돼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나들이객 북적



지난해 7월 문을 연 국립해양박물관에 관람객이 135만명을 돌파했다. 오투도가 보이는 탁 트인 바다전망, 그리고 잘 조성 돼 있는 잔디광장, 가족 들 나들이에 이보다 좋은 곳이 없다.

박물관 측은 현재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1만 3천 700여점에 그치고 있으나

오는 6월에 푸른바다거북 2마리, 해마도 들어올 예정이며 계속 어종, 전시물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개관 1주년을 앞두고 오는 6월부터 3개월간 환경재단과 공동으로 '뉴욕 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 해양 체험전'도 열 계획이다.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가는 버스, 토·일요일 추가운행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을 지나는 66번 시내버스가 토·일요일에는 더 자주 다닌다. 부산광역시는 국립해양박물관을 찾는 시민·관광객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토·일요일마다 박물관을 경유하는 66번 시내버스를 5대 더 추가 운행한다. 배차간격이 기존 20분에서 10분으로 크게 줄어든 전망.

봄을 맞아 국립해양박물관을 찾는 가족 관광객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있는 실정. 하지만 국립해양박물관을 지나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66번 시내버스가 20분마다 다녀 관람객들이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관람객들이 많이 몰리는 토·일요일에는

66번 시내버스 5대를 추가 운행하기로 했다. 평일에는 하루 52회 운행하는 버스가 토·일요일에는 104회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 일단 나들이객들이 많은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버스 승객이 계속 유지될 경우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66번 시내버스는 부산역-도시철도 1호선 중앙동역-국립해양박물관-태종대 구간을 다닌다. 한편, 국립해양박물관은 다음달부터 부산역-국립해양박물관을 오가는 셔틀버스 2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청은 중구 중앙동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국립해양박물관까지 여객선도 운행한다. 바다관광을 가미한 여객선 운행을 위해 오는 5월 해양 박물관 인근에 접안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시민공원 '국립아트센터' 건립 7월 최종결정 KDI,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부산광역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립아트센터 유치에 오는 7월 결정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립아트센터 건립 여부를 결정짓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본격 시작해 오는 7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KDI는 부산시가 국립아트센터 부지로 제안한 부산시민공원에 대해 지난 6월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경제성·정책성·지역낙후도·지역주민 호응도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4개월간 진행, 오는 7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동남권 최대의 복합 문화예술공간인 국립아트센터를 유치, 부산시민공원 부지에 연면적 32만6천 m²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대극

장(전석), 중극장(600석), 스튜디오극장(300석), 야외극장 등 다양한 공연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방침. 부산 유치가 확정되면 2016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사업비는 1천700억원, 전액 국된다.

이병석 부산시 문화예술과장은 "국립아트센터 유치 여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주민 호응도 설문조사가 다음달 진행될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부산시도 국립공연장 유치 희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맷길 스토리맵 7월부터 서비스

현재 걸고 있는 갈맷길의 좌표와 스토리·사진을 지도에 담은 스토리맵이 오는 7월 선보인다.

부산시는 지도 전문기업 한국에스리와 공동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갈맷길 스토리맵을 구축해 오는 6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걸으면서 볼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예산 3000만 원)는 내년 상반기 구축된다.

스토리맵이란 다양한 정보가 결합, 특정 주제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제작된 지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광안대교를 클릭하면 사진과 함께 '동경 129.1285 북위 35.1458 부산 수영구-해운대구'라는 위치 설명이 나온다. 또 "1만 개가 넘는 조명으로 다이아몬드 다리라는 애칭을 갖고 있다"는 식의 짤막한 설명이 곁들여진다.

스토리맵에는 갈맷길 9개 코스 200개 지점의 이야기와 주요 축제가 담길 예정이다. 부산시 이광열 공간정보담당 사무관은 "부산을 잘 모르는 관광객들도 스토리맵을 이용하면 자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갈맷길의 위치나 역사·이야기를 손쉽게 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티투어버스 카드로 요금 낸다

6월까지 버스 내 단말기 설치

부산의 명소를 한꺼번에 둘러 볼 수 있는 '부산시티투어버스' 요금을 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부산관광공사는 오는 6월까지 시티투어버스에 카드결제시스템을 구축, 승객들이 교통·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시티투어버스는 요금을 현금으로만 내야 하는 시스템. 버스 출발점인 부산역 정류장에는 매표소가 따로 없이 직원이 현장에서 발권을 하고 있다. 또 운행 도중 다른 정류장에서 승객이 탈 경우 버스가

가 발권을 해 운전해 집중해야 할 기사의 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부산관광공사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카드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갖추면 승객들은 티머니와 마이비카드 등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탑승할 수 있다. 또 현금결제로 인한 민원 발생도 예방할 수 있어 시티투어버스 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운대 달맞이 근린공원 조성

문탠로드~청사포로 이어지는 관광시설 벨트로서 시너지 효과 기대

바다조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천혜의 관광지 해운대 달맞이에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해운대구청은 최근 달맞이길 입구에서 청사포까지 4만 7천899m² 규모로 추진 중인 달맞이 근린공원에 해양야생초화원·달맞이 예술문화관·테마정원과 조각공원 등이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달맞이 예술문화관의 경우 1천95m² 규모로, 언덕을 따라 경사지게 건물을 조성하고 옥상은 녹지로 꾸미게 된다. 공원 시설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변 산림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질 계획이다.

달맞이 근린공원은 2002년과 2006년 이 일대가 두 차례에 걸쳐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추진됐다. 총 사업비는 5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보상비만 400여억 원이다. 달맞이길 아래 대부분 땅이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땅주인과의 갈등 등으로 더디게 진행된 공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보상이 시작돼 올해까지 49억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진행됐다. 2015년부터는 기반 조성 사업에 들어가 2020년 공원을 완성한다는 게 전체적인 사업 일정표다. 달맞이 근린공원이 갖춰지면 근접성이 뛰어난 바다 조망 공원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대 해수욕장부터 문탠로드, 청사포로 이어지는 관광시설 벨트로서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구청은 공원 부지 내의 동해남부선 폐선 예정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공원이 완성되면 달맞이언덕 일대 극심한 주차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남구 이기대공원처럼 바다를 끼는 공원으로 달맞이 근린공원은 매우 뛰어난 입지 조건이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MICE 로드쇼 2013 개최



말레이시아관광청은 한-말레이시아 양국간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말레이시아 MICE 로드쇼 2013' 행사를 2013년 4월 25일(목) 부산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부산시관광협회장을 비롯한 여행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최측은 기업리빙 및 인센티브포상여행에 대한 특별지원프로그램인 Malaysia Twin-Dea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2014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를 맞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토대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에 부산시관광협회 이태섭 회장은 지금껏 숙원이었던 부산과 말레이시아를 잇는 직항편이 개설 될 예정이어서 양 지역간 교류에 새 지평을 여는 매우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며, 또한 2014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여행업계에 부산시민이 말레이시아를 다시금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뜻을 전했다.

마카오정부관광청 트레블 마트 및 런천 리셉션 개최



마카오정부관광청은 피리스 부청장을 단장으로 지난 2013년 4월 25일(목) 부산롯데호텔에서 마카오 관광상품기획 특별 프로모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마카오정부관광청은 마카오의 호텔 및 워킹시설, 관광업계 대표단과 함께 특별 프로모션에 참가하여 부산의 여행업에 관계자 100여명과 합



께 마카오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장을 만들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 부산시관광협회 이태섭 회장이 참석하여 양 지역간의 교류 증진 및 트레블 마트 개최를 축하하며 마카오정부관광청 새 슬로건인 '오감만족 마카오'를 선창하시며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부산 전통시장에 야간관광 특화거리 개발

구포·국제·부평시장 내,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6월부터夜市 상설운영 외국인 관광지로 활성화

부산시가 전통시장에 상설 야시장을 개설해 외국인 야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부산시는 전통시장을 지역의 문화공간이자 명품관광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6월부터 북구 구포시장과 중구 국제시장, 부평시장 등에 상설 야시장을 개설하고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설 야시장은 시장이 철사하는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외부 상인들을 유치해 다양한 먹거리와 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문화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야시장이 개설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와 먹거리, 소품 환경을 제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은 해운대와 태종대 등 관광자원은 우수하지만, 외지 관광객들이 야간에 즐길 수 있는 밤문화·이트 라이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시는 올해 유동인구가 많고 아케이드 시설이 완비된 북구 구포시장과 중구 국제·부평시장 등을 야시장 개설 유력 후보지로 꼽고 있다. 야시장 상인들의 이동 판매대를 규격화하고 조명설치, 주변환경 정비 등도 추진한다. 특히 구포시장은 야시장 개설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행 코스로도 상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포시장은 시장경영진흥원이 추천한 문화관광형 시장에 이미 선정되었으며, 부평시장도 올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국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시는 구포시장과 국제·부평시장 야시장이 정착되면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등으로 전통 야시장 개설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상품 구매형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산어묵, 건어물 등과 같은 지역 내 특산물을 시정별 CI 및 로고를 개발해 부착·판매한다. 청년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스튜어디어 점포를 활용한 경동 야시장 거리를 조성한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공원화 세부조성계획업체 선정 시작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공원화 세부조성계획 업체 선정이 시작됐다. 부산시는 "공원 세부조성계획 수립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달 입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1개 업체를 선정해 적격심사를 펼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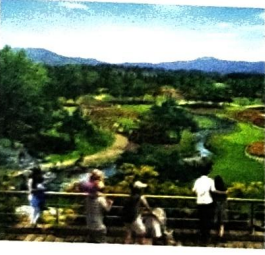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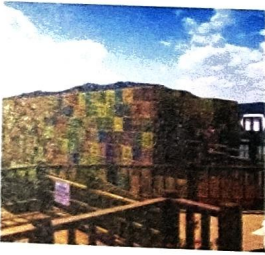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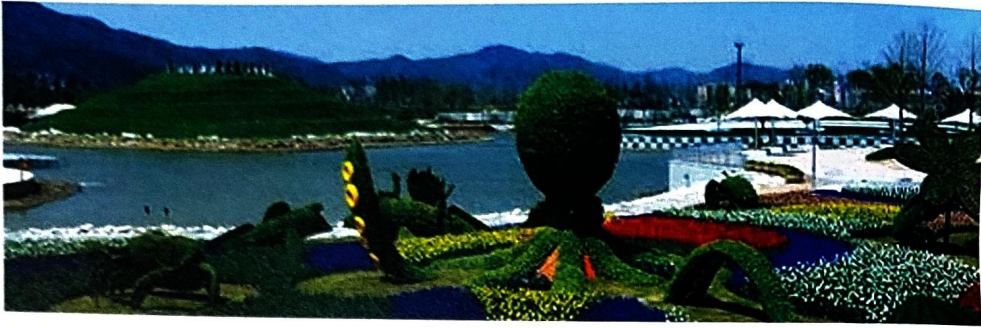
올해 말까지 동해남부선 복선화선로 이설에 따라 내년부터 기능을 상실하는 폐선구간(해운대구 우동 올림픽교차로-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9.8km) 국유지 26만 8천655㎡에 산책로·자전거길·녹지 조성과 관련된 세부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부산시는 이 세부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모두 628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오는 2017년까지 명품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폐선부지와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를 연결하고 관광기능을 높이기 위해 바이모달트램경전철과 버스의 정점을 살린 친환경 교통수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공원 조성의 최대 걸림들은 전체 부지의 93.4%에 달하는 국유지의 사용 협의. 부산시는 올해부터 무상 양여에서 무상 사용으로 입장을 바꾸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펼치고 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주제:지구의 정원 순천만)

순천시 풍덕·오천동 일원에서 10월 20일까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에 선보이는 23개국 83개(세계11·테마11·참여61)의 각각색 정원이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주제 '지구의 정원 순천만' 과 걸맞게 정원박람회 주인공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동식물이었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정원박람회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가 공식 승인한 국제 행사다. 다양한 정원은 물론 최첨단 조경·화훼 기술도 엿볼 수 있다.

박람회장은 습지센터·수목원·세계정원·습지 등 크게 네 구역으로 나뉜다. 습지센터구역에 들어선 박람회 주제관 국제습지센터(9934㎡)는 지하 1층·지하 2층 크기다. 습지센터 내 1층 생태체험관 미니 갯벌에선 순천만에서 서식하는 농게·철개·짚뚱어·망둑어 등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자연 환경 그대로 조수간만의 차로 물이 빠졌다 차올랐다. 습지센터 뒤편에는 너구리와 고슴도치·수달·오소리·육지거북 등이 모여 있는 '야생동물원' 이 있었다. 멸종위기 동물인 육지거북 암수 한 쌍은 아프리카 세이셸공화국에서 순천과의 우호 교류를 위해 보내왔다. 이밖에 수목원구역에는 한국 고유의 정원을 한 곳에 모아놓은 '한국정원' 과 200여종의 자생 나무와 식물을 한 자리에 모아 놓은 '나무도감원' 과 수목원전망지 등이 있다. 한국정원은 궁궐·군자·소망의 정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멸종위기식물 2급 한국 특산종 '히어리' 가 궁궐의 정원에 식재돼 있었다. 습지센터·수목원구역과 세계정원구역이 들어선 주박람회장(562,4000㎡)은 일록달록한 모양의 한글로 디자인된 꿈의 다리길이 175m·폭 7.3m 로 연결됐다. 2010년 중국 상하이엑스포 때 한국관을 디자인한 설치미술 작가 강익중 씨가 자원의 재생과 순환 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세웠다. 내부에는 어린이들이 그린 14만5000여점의 그림이 전시돼 있었다. 주박람회장은 영국 첼시드라워하우스에서 2년 연속 최고상을 받은 황지해 작가가 만든 정원 갯지렁이 다니는 길 과 네덜란드·미국·이탈리아·중국·일본 등 10개국(한국 포함해 11개국) 세계 정원이 조성돼 있었다. 영국의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찰스젠스가 순천의 모습을 형상화해 만든 순천호수정원도 필수 코스로 꼽힌다. 순천만 생태관광을 원하는 박람회객은 입장객은 행사장과 순천만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무료 활용하면 된다. 박람회장 티켓 소지자에 한 해 순천만 입장은 무료다. 순천만은 박람회객이 아니라도 많은 이들이 찾는 생태탐방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기왕 박람회장을 찾은 탐방객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으로 발길을 돌려보자. 갯벌과 갈대밭, 갯벌 사이 수로(水路)를 배경으로 떨어진 석양의 강렬한 빛은 연인습지 생태관광의 묘미를 인제준다. 하지만 여러 곳을 스치듯 둘러보는 관람보다는 정원 하나라도 제대로 찬찬히 살펴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이거점 조직위 운영팀장은 "오늘 우리는 어디서나 빠른 것만 추구해왔다."며 "정원박람회에서는 꽃과 나무를 보면서 삶에 지친 마음에 휴식을 갖고, 여유롭게 정원을 거닐면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관광안내 지역번호(051) / Area Code (+82-51)

Tourist Information



- 일반전화 이용시 (By Pay Phone) : 1330
-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1330 (예, 부산관광안내전화는 051+1330)
- By Cell Phone : Area Code+1330 (eg. Busan Tourist Information 051+1330)
- 24시간 통역 서비스 기능 : 24 hour Interpretation service available In <http://tour.busan.go.kr>

부산광역시관광협회 / 동구 초량3동 / 463-3111	Busan Tourist Association / Choryang 1-dong, Dong-gu
김해국제공항관광안내소(국제) / 강서구 대저2동 / 973-4607	Gimhae Airport Tourist Information Center (Int'l) / Daejeo 2-dong, Gangseo-gu
김해국제공항관광안내소(국내) / 강서구 대저2동 / 973-2800	Gimhae Airport Tourist Information Center (Domestic) / Daejeo 2-dong, Gangseo-gu
국제여객터미널관광안내소 / 중구 중앙동 / 465-3471	International Ferry Terminal Tourist Information Center / Jungang-dong, Jung-gu
부산역관광안내소 / 동구 초량3동 / 441-6565	Busan Station Tourist Information Center / Choryang 3-dong, Dong-gu
부산외국인서비스센터 / 동구 초량동 / 441-3121	Busan Information & Service Center for Foreigners / Choryang 1-dong, Dong-gu
해운대종합관광봉사센터 / 해운대구 중동 / 749-5700	Haeundae Tourist Information Center / Jung 1-dong, Haeundae-gu
송정관광안내소 / 해운대구 송정동 / 749-5800	Songjeong Tourist Information Center / Songjeong-dong, Haeundae-gu
UN기념공원안내소 / 남구 대연4동 / 652-1608	UN Memorial Cemetery Tourist Information Center / Daeyeon 4-dong, Nam-gu
관광불편신고센터 / 연제구 연산5동 / 861-1101	Tourist Complaints Center / Yeonsan 5-dong, Yeonje-gu

부산교통안내 지역번호(051) / Area Code (+82-51)

Important Transport-related Telephone Numbers

항공 Air	김해국제공항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대한항공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www.gimhae.airport.co.kr www.koreanair.com www.flyasiana.com	974-3114 1588-2001 1588-8000
선박 Ferry	국제여객터미널 International Ferry Terminal 연안여객터미널 Coastal Ferry Terminal	www.busanferry.co.kr www.seomticket.co.kr	465-3471 660-0117
철도 Train	KTX 철도 (부산역 Busan Station)	www.ktx.korail.go.kr www.busanstation.co.kr	1544-7788 1544-7788
시외버스 Inter-city Bus	부산고속버스터미널 Busan Express Bus Terminal 동부시외버스터미널 Dongbu Intercity Bus Terminal 서부시외버스터미널 Intercity Bus Terminal	www.bxt.co.kr	1577-9956 1577-9967 1577-8301
시내교통 City Transfortation	렌터카(부산자동차대여사업조합) Rent-A-Car 택시(부산택시사업조합) Taxi 시내버스(부산시내버스사업조합) City Bus Office		505-4244 462-4651 635-5221



여행시장 변천사

1962년 1만명에서 2012년도 반세기만에 1300만명으로

해외여행시장이 본격적으로 무르익기 시작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전이다. 1989년 1월1일 정부는 해외연령 제한을 폐지했고 이때부터 해외여행시장은 본격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약30%에 해당하는 인구가 매년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여행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루 평균 3만5000여명이 해외로 출국하며, 1인당 평균 110여만원의 관광비용을 지출한다. 인구 5000만 명에 해외여행자수 1300만명을 넘어선 2012년 아웃바운드시장의 현주소다.

50년 전인 1962년 해외출국자 수는 고작 1만명.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약 20여만원이던 것에 비하면 해외여행은 반세기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해외여행시장이 본격적으로 무르익기 시작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전이다. 1989년 1월1일 정부는 해외연령 제한을 폐지했고 이때부터 해외여행시장은 본격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해외여행 자유화이후 매년 20~30%이상 큰 90년대 초중반 해외여행 시장은 1차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89년 자유화당시 서울도심에서만 80~90여개의 여행사가 성업했을 뿐, 해외여행은 일부 특권층의 전유

물이었던 시기였다.

그러다 90년 초반부터 해외여행시장은 붓물 터지듯 내국인들은 '해외로...해외로' 나가기 시작했다. 89년 100만명을 넘어섰고 92년 200만명을 돌파했다.

94년에는 300만명을, 96년에는 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해외여행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다 97년 하반기에 닥친 IMF한파는 마치 뜨거워진 대지 위에 소나기가 퍼붓듯 여행시장은 일시에 마비상태가 됐다. 기라성 같던 여행사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항공사들 역시 고객보다 승무원들이 더 많이 타고 비행하기도 했다.

당연 해외여행수요도 급감해 98년 해외출국은 전년대비 -33%가 감소했다. IMF의 한파를 겪은 여행업계는 2000년 뉴 밀레니엄시대를 맞아 제2차 부흥기를 접하게 됐다. 2000년 500만명 해외여행을 돌파했고 매년 100만명 씩 증가하다 5년 뒤인 2005년에는 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를

맞아했다.

2005년 1000만명 돌파이후 해외여행시장은 완만한 성장곡선을 그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9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잠시 주춤했던 것이외 매년 평균 10%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구도는 과거와 달리 여행시장이 차츰 정착기로 접어드는 단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행사 수 변천사

해외여행자유화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여행사 수는 1만5000개(2012년 12월 기준)를 넘어섰다.

91년대비 580%가 늘어난 셈이다. 전국적으로 여행사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1만5254개의 여행사가 등록돼 있다. 2011년 동기 1만4169개사에 비하면 1년새 1000여개가 더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여행사중 5564개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의 도시인 부산은 1061개사(7%)가 영업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833개사로 5%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제주 3개 도시의 여행사 분포가 전국 여행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여행알선업, 허가제로 변경

국제 여행알선업은 1971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당시 교통부는 1971년 6월 건설한 업자에게 여행업 참여기회를 주고 부실한 업체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신규허가와 허가취소 조치를 취해지는 과정에서 31개 여행사만이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다 1973년 4월 경주에서 열린 관광세미나에서 이용걸 교통부 관광국장등은 관광사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여행알선업을 비롯 관광토산물 판매업, 요식업 등의 신규허가 및 등록에 대해 억제 방침을 밝혀 결국 여행알선업체는 23개로 굳혀졌다.

여행자유화... 다시 등록제로

교통부는 1982년 7월 12일 관광진흥을 촉진하고 국민해외여행 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알선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했다.

국제여행알선업에 대한 허가제도 신고제로 바뀌면서 23개 업체에 불과했던 국제여행알선업체는 58개사로 대폭 늘어나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게 된다.

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조치는 해외여행시장을 크게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행사 수도 크게 늘어나 90년대 초반 2000여개 여행사가 등록, 해외여행 호황에 가세했다. 그 당시 여행은 주로 패키지상품이 인기를 얻었다.

1992년 전체 출국자를 목적별로 분류해 보면 순수 관광목적의 해외여행이 35.4%를 차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상용 25.7%, 방문시찰 등이 18.3%였다. 95년에는 내국인이 381만명이 출국, 처음으로 내국인 해외여행자가 외래 관광객을 앞지르기도 했다.

관광진흥법 개정 등 제도개선

갈수록 증가하는 해외여행과 더불어 치열한 가격경쟁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정부는 여행객을 보호할 목적으로 1993년 12월27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여행업 제도관련 개선내용으로는 94년 11월1일부로 시행에 들어간 기획여행상품의 신고와 여행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이다.

기획여행은 해외여행의 목적지, 일정, 숙박, 교통 등 여행서비스 내용과 요금을 정해 여행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기획여행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여행사가 이 상품을 미리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해 여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행업자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행사와 소비자간의 분쟁방지를 위해 여행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한 여행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항공권 발권대행 수수료 폐지

2000년대 들어 여행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항공권발권 수수료 조정이 다.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이후 여행시장은 IMF의 위기를 벗어나면서부터 양적 질적 성장이 가속화된다.

국내 취항하는 항공사들도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2005년 내국인 1000만여명 해외출국시대가 됐다. 항공권 발권액이 늘어나면서 항공사들은 여행사의 발권대행 수수료 9%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 시작했고 세계적 추세는 자유로 대한항공이 먼저 칼을 뽑아들었다.

대한항공은 2007년 12월13일 "2008년 4월부터 기존 9%의 수수료를 7%로 인하하겠다"고 여행사들에게 통보하기에 이른다. 여행사의 반발은 가했다. 노상집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하방침을 철회시키지 못하자, 이를 지켜보던 아시아나항공도 결국 2008년 1월24일 "동년 5월부터 9%의 수수료를 7%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터진 붓물은 곧바로 제로컴의 단초가 됐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7%의 수수료조차 없애겠다고 발표했고 2010년 1월부터 제로컴이 시행됐다. 유럽·미주항공들도 역시 제로컴 발표가 잇따랐으며,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보다 1년 3개월뒤인 2011년 4월부터 제로컴을 시행했다.

손해식 편집위원

의료관광과 부산의 과제

지난 4월 23일부터 7일간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방문 했을 때 우즈베키스탄의 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의 의료 수준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국제의료관광박람회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우리의 의료관광부스를 설치하여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의료 실정을 매우 효과적으로 전시·관람케하여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강 신 희
강동병원장, 의학박사

2천년대 들어 웰빙(Well-being)이 일상화되면서 복지와 건강증진을 이루는 힐링(healing)이란 용어가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가벼운 산책에서부터 조깅과 등산, 수면과 식사, 그리고 신발과 의류, 심지어 개인 악세서리에도 이르기까지 힐링이 전제되고 있다. 원래 힐링은 아프거나 상처난 데를 고쳐 주거나 날게하는 일종의 치료개념이지만 오늘날처럼 웰빙이 인간 삶의 비탕이 되다보니 힐링은 곧 의료개념으로 발전한 것이다.

힐링은 '몸이나 마음의 치유, 고치는, 치료의'라는 의미로, 아픈 무언가를 고친다는 뜻이다. 도대체 누가 무엇이 아픈 것일까? 잠깐만 돌아보면 아픈 사람들이 참 많다. 입시 성적과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 직장이 없어 백수생활을 하는 청년들, 대책 없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베이비 불 세대,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 등 외롭고 아픈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뿐인가. 허리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물지마 사건·사고' 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지금 당장 나 자신에게도 '힐링'이 꼭 필요하다고 외치고 싶다.

힐링의 필요성은 경쟁과 과속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한 서구인들이 먼저 절실하게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동양의 전통적인 명상이나 수행 등을 통해 현실적인 도움을 얻었고, 그런 분야의 대가들도 여럿 있다. 힐링 이전에 한때는 '웰빙'이 유행했었다. 웰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즉 건강할 상태를 이르는 것으로 정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었다. 반면, 힐링은 인간 개개인이 지닌 건강 잠재력과 건강 위해요소들 간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동적이고 객관

적인 개념으로 풀이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이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이 의료 기술을 개발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올해 지역 해외 환자 유치 선도 의료 기술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대구·부산 등 지자체 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체 예산과 민간 재원을 국비 지원액 이상으로 더해 지역에 맞는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데 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15만7000여명(잠정)으로 전년(12만2297명) 대비 28.4% 늘어났다.

부산을 의료관광 허브로 만들기 위한 부산시의 홍보가 본격 시작됐다. 부산시는 부산 의료관광 홍보영상을 제작해 이달 초부터 동영상 전문 채널 유튜브에 올렸다고 밝혔다.

5분 남짓의 홍보영상은 부산의 관광자원과 의료 서비스를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소개하는 방식이다.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과 세계꽃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부산의 주요 국제행사를 보여준다. 이어 서면 메디칼 스트리트 내 부산의료관광 안내센터와 동남권원지역의학원, 주요 대학병원의 첨단 장비와 의료진 등을 소개한다.

특히 5개 국어 내레이션은 부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도움을 받아 녹음됐다. 덕분에 당초 계획보다 제작비를 크게 줄여 700여만 원에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영상은 유튜브에 '메디컬 부산' 채널을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케이팝(K-POP)의 열풍에 힘입어 한류스타 팬미팅을 활용한 홍보도 시작한다.

한류스타의 팬미팅 행사가 올해 부산에서 9회 정도 열리는데, 중국·일본 등 아시아권 관광객이 늘어나는 점을 겨냥해 팬미팅 행사장에서 부산의료관광을 홍보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23일에는 영화배우 이준기의 팬미팅 행사가 1백21일 일정으로 참가하는 일본 관광객 500여 명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부산의 의료시설이 낙후돼서라기보다 부산지역 의료시설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이다. 오는 손님도 놓치는 꼴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5월부터는 서면 메디칼 스트리트 내 의료기관 10여 곳이 팬미팅 참가를 겸해 호텔에 투숙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상담과 간단한 진료·수술을 해주는 '의료관광상담센터' 도 연다.

부산 의료관광 사업은 추진 첫해인 2009년 4천여 명을 시작으로, 2010년 5천여 명, 2011년 1만여 명에 이어 지난해 1만 4천여 명이 이용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로 5년째를 맞는 부산 의료관광의 홍보방법을 다양화해 해외 환자 유치를 늘리고 지역 숙박·음식·관광산업이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산업은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부산에 일이 있어 방문한 외국인 사업가나 관광객들이 비즈니스는 부산에서 하고 진료는 서울에서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산의 의료시설이 낙후돼서라기보다 부산지역 의료시설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이다. 오는 손님도 놓치는 꼴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질한별로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부산시 홈페이지 등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관광 팸 투어(사전답사) 실시도 부족하다. 외국인차 유치업체들에 대한 시의 지원은 유명무실하다. 부산은 항공 직항편이 부족해 진료와 여행 일정들이 틀어질까 봐 부산행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외국 손님을 서울의 병원들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의료행위별 표준가격표를 만드는 등 부산 의료관광을 체계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통역 실력과 의료 지식을 동시에 갖춘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도 시급하다. 부산시는 병원들과 해외환자 유치업체들을 유기적으로 묶어 의료관광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통합적인 조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서면메디칼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 등 민간 단체들과도 긴밀하게 협조해야 마땅하다.

러시아·중국·일본 등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행태에서 벗어나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쪽 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해외 에이전시를 적극 발굴하고 제휴 병원을 통한 거점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외국인 환자들이 자국에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국인 의료 관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직항 항공노선 증설이나 항공항 건설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문제점으로 제기 되는 몇가지만 개선 된다면 한국의 의료관광은 세계적인 의료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있을 것이다.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에서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강동병원을 운영해 온지도 어느새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15명의 의사와 200병상을 가지고 정형외과를 비롯하여 미취통증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내과, 치과 등의 진료과목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중앙 아시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여 우리의 의료관광시장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환자들을 국내에 유치하는데 앞장선 의료 관광 마케팅 활동은 매우 유익하고도 보람된 일이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의료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지역에서는 인공관절 환자들의 한국내에서의 수술과 진료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지난 4월 23일부터 7일간의 위 두개 국어를 방문 했을 때 우즈베키스탄의 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의 의료 수준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국제의료관광박람회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우리의 의료관광부스를 설치하여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의료 실정을 매우 효과적으로 전시·관람케하여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문제점으로 제기 되는 몇가지만 개선 된다면 한국의 의료관광은 세계적인 의료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의료관광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진흥원과 문화관광체육부의 한국관광공사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단일 부서로 통합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정부차원의 지원대상이 수도권과 대경권과 대학병원에 치중된 것을 지방의료기관에도 공평하게 지원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의료 전문인력을 의료 현장에 맞게 원활한 인력공급이 이루어지게끔해야 하며 의료 통계도 병원 현장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동대학교 의료관광정보센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가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해결형(problem solving style)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을 제시하여 기존 의료관광산업 기반구축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마루모사오
대동대학교 교수
부산의료관광정보센터 팀장

대동대학교 부산의료관광정보센터는 부산광역시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하여 대동대학교 관광경영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 해외환자 유치 등록 기관에 대한 홍보, 부산시 의료관광 상품 소개, 관광객에 대한 의료관광 상품 One-stop 서비스 제공, 의료 관광객에 대한 통역지원, 의료관광 공동 마케팅,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등 자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관광 종합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센터에서는 해외환자유치 허브로서 비즈니스센터, 홍보관, U-Health 체질관, 영상관을 통해 부산의 수준 높은 의료관광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객과 협력병원의 화상회의를 통해 예약상담 및 병원의 전문치료 영역과 진료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의료관광 에이전시 팸투어 및 50개 부산 해외환자 유치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맺어 JCI 국제 세미나 개



최와 부산국제의료관광컨설팅기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및 향상프로그램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의 특징

부산의료관광정보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신성장동력으로 예상되는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 기반이 되는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를 양성함으로써 의료관광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를 높임으로서 국제적 의료관광 특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가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해결형(problem solving style)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을 제시하여 기존 의료관광산업 기반구축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멘토링 시스템을 이용한 맞춤형 교육(사이버교육)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링 시스템을 특별로 운영하여 취업지원활동 및 교육생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실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개발을 통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동남권원지력의학원, 서울아산병원, 차음, 세브란스병원 외 30개의 병원 및 170여개의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통한 현장 실습, 현장 업무능력향상을 통하여 현장맞춤형 인재를 양성함.

의료관광현장맞춤형 영어, 일본어 외국어교육 강화

의료관광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외국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어, 일본어 중심의 각종 서류작성 및 현장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을 위해, 대동대학교 서비스경영계열 재학생들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챌린저 21프로그램의 일환인 글로벌 의료관광 마케터 육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외교류대학(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뉴질랜드 매시국립대학, 유니텍대학, 일본 오사카 국립대학, 오사카 관광대학, 싱가포르 웨이대학)의 공동학점교과과정을 통하여 1학기동안 한자만인,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헬스 퀄리티 등에 관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선진화된 의료관광 현황과 시설을 탐방하고 하계(동계방학)에 실시되는 어학연수를 통해 의료관광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2013년도에 첫 시행되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시험을 위하여 대동대학교 부산의료관광정보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부산관광공사와 연계하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5월 20일 30명 규모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의료관광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 60,201명에서 2010년은 35.9% 증가한 81,789명 2011년은 49.5% 증가한 122,297명으로 연평균 42.5%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은 정책목표인 11만명을 초과 달성하였다.

지역별 현황으로 보았을 때 부산의 순위는 2위로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총63.3%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요 국별 외국인 실환차수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환자를 보유했던 국가는 미국이며,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순으로 연간 100명 이상 유치 국가수도 늘어나고 있다. 2013년 중점 국가별 전략으로 제일 높은 순위를 보였던 미국은 건강보험체계 한계(높은수가, 긴 대기기간)를 공략, 두 번째인 일본은 한방, 피부 등 일본인 특화상품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방 이용 의료관광객중 일본인 비중이 1위(76%)이기 때문이다. 그 외 중국의료관광객은 미용, 성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향후 계획 및 비전인 2013년도 연간 20만명 지속가능 성장, 2016년도 30만명 유치, 2020년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여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동북아 의료관광의 허브로 도약하여 환자 중심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유치채널의 다변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허용, 국가간협력을 통한 중증환자 유치 확대, 의료서비스 차별화 및 인지도 제고, 양방향 통합의료 연계 서비스 개발, 외국 의사 초청 연수 프로그램 확대, 메디컬 비자 발급대상을 간병인까지 확대, 의료관광 융합 서비스 발굴 및 지원, 해외환자 유치 복합타운 조성, 의료관광객 대상 숙박시설 인프라 확충, 합리적 수가, 수수료 결정, 불공정 거래 차단,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대상 배상보험 가입 촉진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관광 의료관광 인지도를 확산해야 한다.

부산, 외국인 의료 관광객 1년새 41% 급증 한류 열풍 · 싼 의료비 등 월등한 기술, 세계가 인증

부산을 찾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부산시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나선 2009년 이후 매년 가파른 상승세다. 한류열풍에다 뛰어난 의료기술, 상대적으로 싼 의료·숙박비, 잘 구축한 관광인프라가 외국인 환자의 발길을 부산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서 제공한 가상상황제형. 지난해 부산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만4천125명, 2011년 1만31명보다 41% 급증했다. 간단한 치료나 건강검진, 성형·피부 관리를 위한 외래환자가 1만2천567명으로 대부분이지만, 암치료나 외과수술, 심장·척추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도 1천55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국적별로는 러시아 환자가 전체의 37.7%인 5천33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중국 1천670명, 일본 1천542명, 미국 1천329명, 필리핀 672명, 베트남 421명 순.

부산시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산 중심가인 서면지역을 '메디컬 스트리트'로 조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곳에는 안과, 치과 같은 전문병원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피부미용 같은 다양한 의료기관 170여 곳이 밀집해있다. 인근에 백화점, 면세점, 쇼핑센터까지 갖

춰 최적의 의료관광지라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첨단 의료장비와 기술, 경험을 가진 대학병원 4곳과 동남권원지력의학원을 비롯한 27개 종합병원, 4천500여 전문 병·의원 등 인적·물적 의료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산시는 의료관광 통역요원 421명과 외국어 의료상담이 가능한 코디네이터 254명을 양성,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8개 언어 통역지원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치과 의료관광' 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국가별로 차별화한 상품을 내놓는다는 전략이다. 러시아 고소득층 대상으로는 치과진료와 심장질환, 건강검진을 병행하는 상품을 개발할 계획. 일본인에게는 임플란트와 미백을 겸한 미용성형을, 중국인에게는 치과진료와 성형을 함께하는 맞춤형 의료관광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사업'에 선정, 국비지원도 받는다. 부산시는 올해 국비를 활용한 국제의료관광컨벤션, 해외설명회, 해외 유수의 의료기관 초청 팸투어, 유튜브 홍보 같은 다양한 사업을 펼쳐 의료관광 중심도시 위상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의료관광협의회,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개최 성황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가 주최하는 제3회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가 이달 초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일원에서 개최됐다.

부산진구청,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개최한 이번 행사는 부산의 의료관광 중심지인 '서면메디컬스트리트(SMS)'를 국내외로 알려 인지도를 높이고 의료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는 부산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병·의원들이 밀집해 있는 거리를 말한다.

축제의 핵심은 의료체험 행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트레비분수광장에서 진행됐으며 23개 의료기관 의료진이 참여해 별도의 부스도 운영했다.

다양한 문화공연도 펼쳐졌는데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일원에서 세계 민속춤 공연과 고객대 공연, 거리미소 등 다채로운 게릴라 공연이 열렸으며, 포토존, 투호놀이, 롤케이크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준비 됐으며 다문화가정 및 탈북사ister 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나눔 행사도 병행했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는 "올해 출범 5년차를 맞아 부산의 선진 의료기술을 알리고 상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의 선두주자!

강 동 병 원

보건복지부지정 정형외과 전문병원
보건복지부지정 해외환자 유치등록병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145
전화 (051)209-1100(교) FAX (051)201-3865

의료 관광객 숙박시설 '메디텔' 건립 쉬워진다

6월 관광진흥법 개정, 의료관광 활성화, 동부산관광단지 내 한옥형 별장도 가능해져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개정, 숙박시설 메디텔 건립이 쉬워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동부산관광단지 등 관광단지 내 개인별 별장 건립이 가능해지고 의료관광을 위한 메디텔과 같은 새로운 호텔업이 생기게 됐으며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 자격요건도 다소 완화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제자유지역으로부터 수출한 200여 건의 건의과제 중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위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호텔업은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호스텔업 등 기본적으로 5개

다. 이 때문에 큰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숙박시설을 세우려면 관광호텔로 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관광호텔은 인근 주민의 민원이 많고 설립요건도 매우 까다로워 메디텔 건립이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6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형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시설도 허용, 동부산관광단지 내 한옥형 별장 설립이 가능해졌다. 정부 계획대로 오는 9월 국회에서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사업자 공모-선정-주택건설 승인-설계 등 절차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행 中관광객, 무비자 부산관광

부산권 환승관광 가능, 제주도 입도전 72시간 이내

5월 중순부터 제주도로 가는 중국 단체관광객은 김해국제공항으로 무비자 입국 후 동남부산, 울산, 경남, 경북 지역 환승관광이 가능해진다. 김해공항을 무비자로 입국해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가 주관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와 중국 측 전담 여행사 주관 하에 72시간 이내 부산-울산-경남-경북을 관광한 뒤 제주도로 갈 수 있는 것. 출국은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환승관광 도입을 적극 건의,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시행하

게 됐다. 인천국제공항은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김해공항은 환승관광 관리단체 선정, 환승 안내도우미 확보 같은 준비기간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부산시는 조류인플루엔자(세), 쓰촨성 지진 같은 악재 속에서도 중국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부산-제주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만들고, 환승관광 참여 단체, 여행사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 아시아 의료관광 최고도시에

한·중 언론3사 공동주최... '메디컬 아시아' 대상수상

의료수준 높고 이용편리

부산광역시가 아시아 의료관광 최고도시에 뽑혔다. '메디컬 아시아 2013' 의료관광 선도 자치단체 부문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것. 한·중 언론 3사(동아닷컴, 머니투데이, 중국신문망)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관광공사기 후원하는 메디컬 아시아는 의료관광을 선도하는 자치단체와 외국인 환자 유치기 가능한 병·의원 발굴을 위해 제정한 상. 올해로 6회째다.

메디컬 아시아운영위원회는 수상단체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사전 기초조사, 전문가 조사, 온라인 조사, 병원 모니터링, 직·간접 암행조사, 공동 자문위원 인증을 거쳤다. 이번 의료관광 자치단체 우수기관은 네티즌 조사 90%, 전문위원 평가 10% 배점으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네티즌 조사에서 945점(1천 점 만점)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제23대 임원〉

(임기 : 2013. 3. 10 ~ 2016. 3. 9)

직 위	성 명	소 속·직 위	전화	Fax
회 장	이 태 섭	관광식당 게스 후? 대표	협회 463-3111 회사 757-1213	협회 463-0004 회사 759-3755
	염 선 희	국제여행터미널뉴게소 대표	466-4093	463-5676
부 회 장 (7)	강 준 구	(주)진성관광여행사 대표이사	465-3333	462-4544
	장 순 복	(주)대륙항공여행사 대표이사	463-0034	463-0151
	서 학 영	(주)동방여행사 대표이사	466-7107	442-0030
	최 용 하	(주)파라다이스글로벌	749-3205	742-9992
	김 해 롱	부산해상관광개발 대표	743-2500	743-2524
	강 석 환	(주)두모씨앤씨 대표이사	245-1066	245-5314
	신 도 역	(주)건오씨클라우드호텔 대표이사	933-4300	933-4333
감 사 (2)	임 우 재	(주)부산프라자호텔 대표이사	463-5011	463-5018
	이 성 태	허브투어 대표	464-0606	464-6453
이 사 (23)	김 성 한	(주)부산롯데호텔 총지배인	810-5001	(비서실) 810 5003 (총무팀) 810 5609
	박 영 호	(주)파라다이스호텔부산 관리사무	(직통) 749-2632	749-2878
	조 성 한	(주)노보텔메베서터부산 전무이사	(직통) 662-6804 (대표) 743-1234	(대표) 743-1234
	제 경 석	(주)호텔리베라해운대 대표이사	740-2111	740-2100
	김 인 주	호텔아쿠아텔리스 총지배인	756-0202	790-2366
	안 광 춘	(주)에베레스트여행사 대표이사	464-8848	464-4426
	김 영 재	(주)VIP국제여행사 대표이사	462-2576	462-8230
	김 영 준	(주)씨피여행사 대표이사	247-5858	980-0928
	강 승 구	(주)대학여행사 대표이사	311-8200	311-5005
	박 연 옥	(주)로알항공여행사 대표이사	441-8500	253-5580
이 민 호	(주)부산그린여행사 대표이사	466-1100	468-5700	
이 태 민	(주)동보여행사부산지점 지점장	231-2666	231-2601	
조 용 황	한국명품민예사 대표	241-5188	254-6002	
요 여 승	동화반점 대표	611-6686	611-5503	
정 삼 남	모두모두농원 대표	817-3337	817-3349	
문 영 훈	미동암소정 대표	721-9441	721-9853	
최 재 용	(주)사미현 대표	819-8259	816-4825	
김 정 인	흥해참치 대표	754-3747	754-3746	
이 봉 순	리컨벤션 대표이사	711-0040~69	747-7030	
김 영 필	부산아쿠아리움 대표이사(김의중 이사)	740-1768	740-1760	
김 경 영	부산관광사진 대표	246-7600	246-1824	
이 일 재	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990-7073(기업지원팀)	990-7149	
김 영 배	(주)대한항공 부산여객지점	461-7231	464-2225	



국제관광도시 부산



박 봉 규

동의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
 미국 버지니아텍 수료(경영학박사)
 (사)부산관광포럼 회장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단 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시정연구위원회 문화관광분과 위원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
 호텔경영사, 컨벤션기획사 출세위원

부산관광의 현주소

2012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총 11,140천명(세계 인바운드 순위 25위로)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었으며, 2017년 외국인 관광객 1,600만명 달성을 박근혜정부의 국정 추진 과제 의 하나로 선정하였다(제18대 대통령인사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 과제 보도자료). 외국인 관광객 1,600만명 유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형 관광대국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며 인바운드 순위 세계 15-18위로 상승 할 전망이다(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2012.11).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부가·고품질 융복합형 관광산업인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전통문화 체험, 레저·스포츠 등 6대 관광·레저산업을 집중 육성 하는 관광정책 목표를 수립하였다.

국제관광도시 부산 이미지는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칠까? 한국 제2의 도시, 해양수도, Dynamic Busan, 제1의 항구도시, 해양레저도시 등 여러가지로 불리지고 있지만 주로 경제 사회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부산의 고유한 부산지역 문화와 관련된 것은 상대적으로 잊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외적으로 부산의 관광이미지를 전달하는 주체는 바로 부산사람으로 국제관광도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부산관광의 고유성이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펼쳐보여야 할 것이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2012년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614천명(23.5%)으로 2009년 2,026천명에서 매년 약 1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결과는 부산시와 업계에서 관광기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관광과 MICE(회의·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전시회), 크루즈,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쓴 결과이다. K팝과 드라마 등 한류(韓流)가 부산 방문을 자극한 것도 한 몫을 했다. 또한 일본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급속히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 역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부산관광의 비전과 문제점

부산시는 2020년에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 유치라는 목표를 세웠다. 유엔관광기구(UNWTO)도 향후 세계 관광을 주도할 지역을 아시아·태평양으로 보고 이 지역에서 매년 약 1,700만명씩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중 중국인 해외 관광객은 지난 10년간 매년 약 16%씩 증가해 2011년 7,025만명에 이르렀고, 2020년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로 보면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가능하다.

이에 부산시는 '관광하기 좋은 매력 있는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2013년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 크루즈 관광 활성화, 지역특화 관광지 조성, 명품관광상품 개발 및 활용, 관광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풍관광 활성화 여건 개선 및 부산관광의 활력 추진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의 관광산업은 질적 측면에서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와 재방문율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서울·수도권 지역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은 여전하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권을 방문하는 비율은 8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제주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비교적 짧은 것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1년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속박업소 이용실적 현황에 따르면 부산에 숙박하여 관광한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은 6.6%로, 서울의 52.6%, 제주의 10.0%보다 크게 낮다. 이는 부산이 경유형 관광지로 인식되어 있어 체류형 관광지로의 변모가 절실한 상황이다. 여행시간 과잉경정은 질 낮은 상품과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 저가(低價) 관광상품의 무료입장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코스와 과도한 쇼핑 강요는 관광객의 불만족과 재방문을 하려움을 불러오고 있다.

부산의 관광자원과 네트워킹

부산의 국제관광도시 도약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2006년 관광단지 지정된 동부산관광단지는 지정 9년째를 맞아 각종 투자 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 완공 예정인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은 기장군 기장을 대면된 일원 366만㎡에 4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현재까지 투자 유치가 순조롭지 않지만 향후 쇼핑센터, 해양수족관, 테마파크와 호텔, 리조트 등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시계절 체류형 명품 복합레저도시 조성으로 국제관광

부산이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이 찾는 국제관광도시가 되려면 관광체질을 바꾸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우선 고(高)부가 가치 상품으로 관광 상품의 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경관(景觀) 중심에서 문화체험 상품으로, 단일분야에서 MICE, 의료관광, 해안관광 및 크루즈 등 융합상품으로, 명소 중심에서 원도심 골목과 재래시장을 보여주는 일상 체험 상품으로, 부산 중심에서 경주를 포함한 부울경 광역 콘텐츠 상품으로 확대 개발되어야 한다.

도시 부산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여 줄 것이다.

축제는 관광객에게 체험적인 흥분과 감동의 물결을 일으켜 잊지 못할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 국제관광도시 부산에 걸러를 입히는 관광자원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자갈치축제, 광안리어항축제, 해운대로제, 부산항축제, 부산꽃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영도다리축제 등 그 수를 다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자갈치축제를 통해 부산 이미지를 향상하고 부산 사람을 알게 되며, 광안리어항축제를 통해 수영사람들의 애환과 어촌민속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동래읍성역사축제에 대한 관심으로 임진왜란 당시 숭상한 부사와 동래성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한국의 마추피추로 불리며 도시재생산업의 모범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문화마을이 관광객의 관심을 끌어 2012년 9만5천334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은 지역주민, 예술인, 지자체의 성공적인 합작품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산의 신복도로는 8·15 해방과 6·25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서민의 애환이 넘쳐난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현상이었다. 지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쇠퇴한 지역이 됐지만 부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알려주는 소중한 공간으로 '신복도로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지금까지의 지역 커뮤니티센터 건립, 주거환경 개선 등 주로 인프라 확충에서 이제는 역사적·문화적 콘텐츠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모습이 되살아나게 되면 신복도로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매력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복도로는 자갈치시장과 함께 부산 다음을 병행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문화자원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문화자원어 머무르지 않고 부산의 근대와 현대를 연결하는 스톱의 통로로 공간, 시간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역문화 콘텐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산 스토리의 보물창고이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문화의 역량을 강화해 신복도로 르네상스에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역 관광과 MICE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컨벤션뷰로, 아르피나 유스호텔, 부산시투어를 통합해 1본부 1실 4팀 총 124명의 구성원 체제로 2013년 1월 공식 출범하였다.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시, 부산관광개발, 부산컨벤션뷰로 등 관광 및 MICE 산업 관련 기관들을 통합해 관광진흥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시

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부산관광공사의 공식 출범에도 불구하고 인력 등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안정화시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향후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관광 계획·실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관광 정책 과제

부산이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이 찾는 국제관광도시가 되려면 관광체질을 바꾸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우선 고(高)부가 가치 상품으로 관광 상품의 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경관(景觀) 중심에서 문화체험 상품으로, 단일분야에서 MICE, 의료관광, 해양관광 및 크루즈 등 융합상품으로, 명소 중심에서 원도심 골목과 재래시장을 보여주는 일상 체험 상품으로, 부산 중심에서 경주를 포함한 부울경 광역 콘텐츠 상품으로 확대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혁신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저가 상품의 범람으로 실추된 관광 부산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업계에서 고품격 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여행요금을 정상적으로 받도록 해 부산 관광상품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광역권 지자체 차원에서 큰 그림의 관광 계획이 필요하다. 경주·대구의 관광과 울산·경남 관광까지 포괄하는 '동남권 관광 구상'을 세워서 광역권 전체의 관광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시장을 넓혀 한·중·일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동북아 관광'을 구상해야 한다. 현재 세 나라의 외래 관광객 수는 1억명이나 된다. 동북아 관광의 모두를 목표 시장으로 삼는 큰 전략이 필요하다.

도시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 때 특별한 도시가 된다. 관광객이 방문하고 난 뒤 그리움을 갖고 돌아갈 때 비로소 추억에 남는 관광도시가 될 것이다. 부산이 국제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 머무르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모사품적인 도시 공간에서 문화와 관광의 아우라(Aura)가 내장된 특별한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위 글은 동의대학교 호텔컨벤션학과 박봉규 교수기 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공간 그리고 8호에 게재 된 글을 비교우고 문화재단의 양해 아래 전재하였습니다. (편집자주)

중국 국가여유국 한국서 활발한 홍보전

한국과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 우리나라 사람 중에 중국을 가보지 않은 해외여행 경험자는 없을 정도로 중국 해외여행시장은 한국에서 1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 410여만 명이 중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2007년과 2008년, 중국 인바운드 여행통계에서 외국인 방문국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바 있었지만 2009년에는 일본에게 1위 자리를 넘겨줬다. 지난 2010년부터 다시 중국이 역전했다. 특히 2011년에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일본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었다. 중국의 수요 증가가 더욱 긍정적인 껍데기는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은 여행지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륙 지역이 개발되면 더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관광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국가여유국 역시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국가여유국과 여유위원회, 관리국 모두가 해외에서 중국의 여행지와 여행지원·인프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국은 여유국의 하위 또는 유관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해서는 여유국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해외에서도 적용된다. 여유국과 여유위원회, 관리국 등은 모두 해외에서 각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사무소 등을 설립할 수 있지만, 스케줄 조정이나 전체적인 권한은 중국국가여유국이 해외에 설립한 지국에서 총괄 관리한다. 중국국가여유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국가여유국은 총 19개 국가에 지국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여 중국 관광 홍보와 마케팅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는 2003년 8월, 서울 중구 퇴계로 대연빌딩에 중국국가여유국 서울지국(China National Tourist Office, Seoul)을 개소, 중국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편 근래 들어서는 한국의 해외여행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며 중국의 인바운드 1위 국가로 올라서며, 중국국가여유국 외에도 각 지방 여유국과 관리국 등이 한국에 직접 홍보사무소를 세우는 일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각 지방 여유국 및 관리국이 한국에 홍보사무소를 세우는 경우는 대부분 위임계약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의 중국 무역·관광 관련 기구나 여행사를 지정, 자신들의 지역을 홍보하는 홍보사무소 역할을 위임하고 있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 사무소는 관광권 유치와 경제 투자유치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의 각 지역 홍보사무소는 산둥(山東) 여유국 한국사무소와 단둥(丹東) 여유국 한국사무소, 허난(豫南) 여유국 한국사무소, 허난

성(河南省) 운대산 주한 대표부, 하이난성 여유위원회 한국 홍보사무소, 저장성 수이칭현(遂昌縣) 한국 홍보사무소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성상 관광정책 및 집행기관 등 모든 부문을 중국 인민정부가 통제·관리한다. 중국의 관광산업과 관련해 정책 기획 및 집행, 홍보, 지원 등을 하는 기관은 중국국가여유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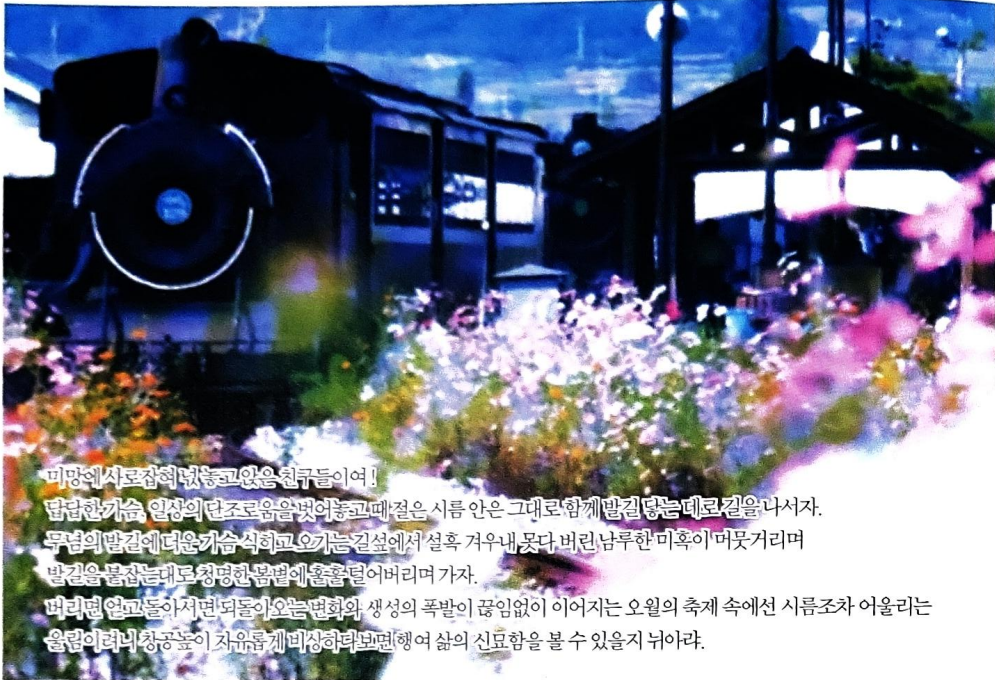
중국의 22개 성(省)과 성 내의 시(市), 현(縣) 등의 행정구역마다 그 구역을 관할하는 여유국과 관리국이 자리하고 있다. 여유국과 관리국은 의미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다. 여유국은 관광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실무 등을 담당하는 반면, 관리국은 해당 지역의 관광지원 관리와 인프라 개발, 관광지 홍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곳의 유명 관광지지역이 밀집해 있는 성의 경우는 여유국의 역할을 관리국이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중화권(홍콩·마카오·타이완)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출국객 기준 중화권을 찾은 관광객은 전체 중 14% 정도다. 지난 2007년 중화권을 찾은 여행객이 10%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년 1%씩 꾸준한 성장을 한 셈이다. 홍콩의 경우 2011년 한국인 관광객 100만 명이 방문, 중화권·동남아를 통틀어 가장 많은 여행객이 방문했다. 마카오 역시 LCC 노선이 증편되면서 한국인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07년 20여만 명에 불과하던 마카오 방문객은 2011년 40여만 명까지 배로 증가했으며 매년 10% 이상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타이완을 찾는 여행객은 늘지 않고 있다. 전체 타이완 방문객중 한국인 비중으로만 봐도 지난 2008년 6.5%에 비해 2% 이상 줄었다.

태국은 지난해 한국인 입국자수 100만명을 돌파하며 2년 연속 한인관광객 100만명 유치에 성공했다. 태국은 2011년도 하반기부터 대규모 홍수피해로 관광실적 저하가 우려됐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1년 한국인 방문객 100만명을 넘겨 인기 관광지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태국 수요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항공사들도 고정 수요 확보를 위한 전념에 나서고 있다. 현재 태국은 항공사들에게 전세편을 방불케 한다. 10여개가 넘는 항공사들이 태국을 오가고 있으며 전세기 등 추가 취항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입소문을 타고 안정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성장폭은 크지 않지만 목격지 홍보와 인지도 향상이 동시에 진행되면 향후 폭발적인 성장도 기대해 볼만하다.

한국인 관광객은 13~15만명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고, 말레이시아 방문 국가 순위는 10위권 내를 기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껏 크게 부각되지 않은 여행지지만, 여행사들과 렌더사, 관광청의 다각적인 프로모션과 마케팅에 힘입어 신흥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김봉오 btjbusan@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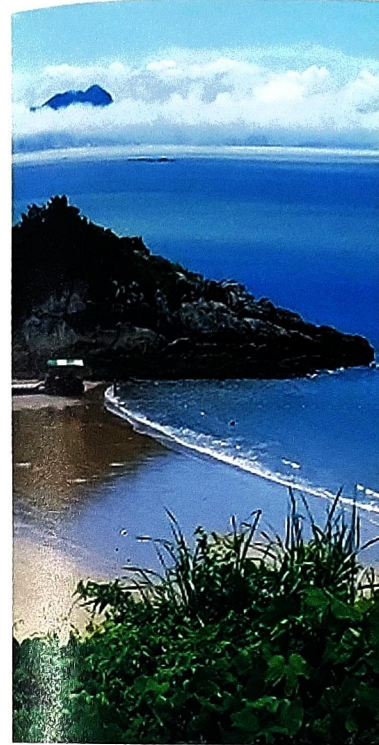
미망에 사로잡혀 낯 놓고 왔을 친구들이여!
 답답한 가슴, 일상의 단조로움을 벗어놓고 때로는 시름 안은 그대로 함께 발길 닿는 데로 길을 나서자.
 무덤의 발길에 더운 가슴 식히고 오가는 길설에서 설혹 겨우내 못다 버린 남루한 미혹이 머뭇거리며
 발길을 붙잡는 데도 청명한 봄빛에 훌훌 털어버리며 가자.
 버리면 얻고 돌아서면 되돌아오는 변화와 생명의 폭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오월의 축제 속에서 시름조차 어울리는
 울림이려니 청풍높이 자유롭게 비성하러 보면 행여 삶의 신묘함을 볼 수 있을지 니아라.

5월엔 여행을 떠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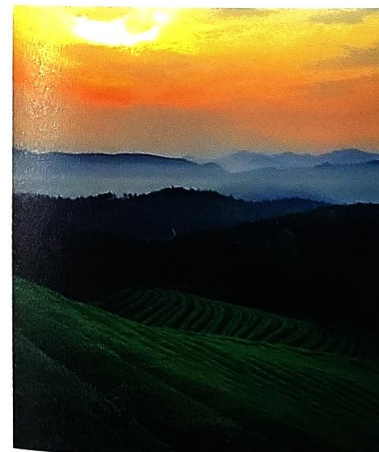


이 평규
본지편집위원

한번쯤 휴관을 벌려야 할까?
 천지에 봄이 무르익어 신명난 생명들이 흔들어대는 끊임없는 물살이 스멀스멀 내 육
 신을 휘감아 연신 휘파람이 터져 나온다.
 경박함인가 어늬한 5월의 관능인가.
 겨우내 거칠고 빈곤하던 천하가 신록의 청신함으로 가득 차올라 온 누리가 파스텔로
 그려 놓은 듯 눈부시다.
 붓을 휘적거리고도 싶고 자연이 휘모는 장단에 허튼 춤이라도 추고 싶다.
 모든 생태계가 가지개를 펴고 청천을 향해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 어찌 마음이 한자리
 에 주저앉아 있겠는가.
 이럴 땐 더불어 여행을 떠나야 하리.
 가을엔 홀로 여행을 떠나다지만 봄엔 왠지저절 무엇이 떠나는데 제격이다.
 생성과 소멸의 순환이 체화된 탓인가, 가을 길은 막히면 말없이 돌아서는 순종이 있다
 먼 봄 길은 막히면 내쳐 새 길이라도 열고 나갈 기개가 있다. 그래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열어 보고 싶은 갈망이 크다.
 오월의 여행은 구도자의 길이 아니라 천미자의 길이며, 회한의 길이 아니라 가벼운 일



탈이요, 몽혼의 길이고 통속한 길이니, 감추어 찾아든 곳을 더듬어 찾아 헤매는 테크니
 션의 길이 아니라 신명이 차올라 제멋에 설레는 아티스트의 길이다.
 길목마다 설익은 이야기가 시금치 꽃과일 향기로 흘러넘치려니 어찌 서둘러 여행길에
 나서지 않으랴.
 들판을 휘감고 산길을 돌아바람과 햇살이 싱그럽게 춤추는 곳, 푸른 오월의 길은 끝없
 이 열려 있어 발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풍만한 자연의 속살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으
 리라.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의 낮은 삶들을 만나면 웃기만 스쳐도 금방 친구가 될 것 같고
 실없이 던지는 허튼소리조차 삶이 차있어 풍요로우려니 설혹 탄성의 한계를 넘은들 무
 외 할 것이며 손사래 쳐온들 아쉬울까.
 다만 흐드러진 봄이 내게 신묘한 얼굴을 내밀고 싱그럽게 웃어 주면 그뿐 내 오월의 여
 행은 끝없이 이어지는 축제가 되리라.
 미망에 사로잡혀 낯 놓고 왔을 친구들이여!
 답답한 가슴, 일상의 단조로움을 벗어놓고 때로는 시름 안은 그대로 함께 발길 닿는
 데로 길을 나서자.
 무덤의 발길에 더운 가슴 식히고 오가는 길설에서 설혹 겨우내 못다 버린 남루한 미혹
 이 머뭇거리며 발길을 붙잡는 데도 청명한 봄빛에 훌훌 털어버리며 가자.
 버리면 얻고 돌아서면 되돌아오는 변화와 생명의 폭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오월의
 축제 속에서 시름조차 어울리는 울림이려니 청풍높이 자유롭게 비상하다보면 행여 삶
 의 신묘함을 볼 수 있을지 니아라.
 여행이란 철학이나 인문학의 길이 아니라 시와 그림, 음악의 놀라운 감성이 질서 없고
 느닷없이 몰아치는 천방지축이려니 햇빛에 반짝이며 자지러지는 오월의 열정을 온몸으
 로 부딪치며 춤추듯 즐겨야 하리.



여행은 낮은 곳으로 낮설음과 마주하고자 떠나는 길이므로 누구에게 낮은 곳은 다
 른 이예겐 낮은 곳이려니 내가 살아오는 이곳으로 낮은 누군가가 마주 여행길에 나섰을
 것이므로
 여행을 떠날 때는 일상의 빗장을 열어놓고 가야 하리라.
 내가 그곳에서 그가 열어놓은 길을 통해 온전히 그의 삶을 온전히 느껴보고 싶은 것처
 럼 그 또한 나의 삶이 온양된 모습을 오롯이 보고 싶지 않았는가?
 이렇듯 여행은 소통과 화해를 통해 다름과 틀림의 의미를 명징하는 길이니 그곳에서
 부딪치는 생소한 삶의 모습들을 신선한 경이로 수용하고 이해하기에는 생명과 건강의
 색이며 자유와 긍정의 색인 녹색이 천지를 휘감고 있는 오월이 안성맞춤 일게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 아름다운 배려가 녹색 천지에 조화를 이루어 만
 물에 연인으로 스며들면 생태계에 보편적 공감이 충만하리니.
 신이 가져다준 창조와 혁명의 계절, 오월이 다가가기전에 서둘러 여행을 떠나자.
 만권의 독서와 만리의 여행이 맞닿아 있다 하지 않느냐?



내 생애 최고의 여행!

여행사의 여행공제회 가입여부 확인부터~


여행사 선택! 여행공제회에 가입된 여행사는 믿으셔도 됩니다

▶ 여행사의 **여행공제 가입여부** 를 꼭 확인하세요!



“여행공제회는 여행객 여러분들의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여행사의 공제가입여부만 확인하셔도 여행사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비행기 요금도 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여행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부실한 여행사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팩스 02-757-7490

서울 02)757-7482 부산 051)463-3111 대구 053)746-6407 인천 032)432-4560 광주 062)233-6400 대전 042)226-8413 울산 052)275-2412 경기 031)255-8424 강원 033)242-0089
충북 043)231-5563 충남 041)631-5485 전북 063)287-6292 전남 061)285-0832 경북 054)745-0750 경남 055)212-1345-6 제주 064)742-8861 KATA 02)752-8682

맛과 멋이 있는 곳...

직장회식, 주부모임, 가족외식

검색창에 **모두모두농원** 을 쳐주세요
www.mdmd.co.kr

초음 모두모두 농원



사랑합니다~ 고객님!
반갑습니다.



본 관 400여명 동시 수용 사랑채 150명 단체 연회실 커피마라솔 테이크아웃커피 전문

- 시설규모 : 100석 / 70석 / 50석 / 30석 대면회의실, 세미나실(스크린), 150여대 주차공간
- 부대시설 : 어린이놀이터, 풍풍, 야외테라스
- 주 메 뉴 : 원주민 바베큐, 오리버섯불고기, 국수



예약·문의 | **1599-148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음동 27-3번지 초음 어린이대공원 500m 조항, 신강이마트 옆)



www.mdasj.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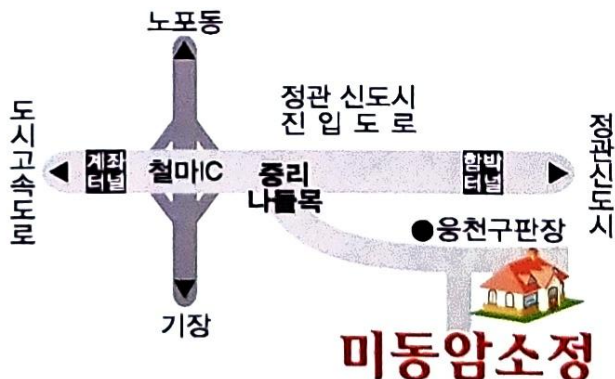


철마 미동암소정

- 한우암소 특상등급 전문점 -



철마 한우 명가 1,000여평의 넓은공간
전국한우인정점 다양한 연회석(300석)
참숯직화구이 단체차량운행 전원통나무집



대표 문영훈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응천리 476-8
TEL : (051) 721-9441
(051) 721-0666
H.P : 011-570-8809